

SK그룹, 청년고용 팔 걷어

metro®
메트로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제3332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2029.47	(−4.69)
코스닥	683.63	(−7.00)
금리(국고채 3년)	1.66	(+0.02)
환율(원·달러)	1138.50	(−6.00)



"3국 정상회담 정례화"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리커창 중국 총리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협력 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회의 정례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큰 틀에서 5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韓·中·日 정상회담
3국 평화협력체제 복원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큰 틀에서 5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12년 2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써 3국의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3국 협력과 연계하고 양자 간 시너지 도모한다는 목표에 따라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으로 명칭이 결정됐다. <관련기사 3면>

공동선언문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 요소(평화·협력·신뢰·번영)를 5대 협력 분야에 반영시켰다.

전문에는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정치안보상 갈등 병존 현상

정상회담 정례화 · FTA 협상 가속화
청소년 교류 강화·스포츠 협력 추진

극복 ▲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한 양자관계 개선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5대 협력 분야에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간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이 들어갔다.

공동선언문은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해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3국 협력사무국(TCS) 역량을 강화한다. 중·일 양측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의한다"며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 가속화에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과 관련해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을 환영하고,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3국간 환경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간 상호신뢰·이해증진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장관 회의 신설, 스포츠(올림픽 개최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국제사회 평화·번영 공헌과 관련해 북핵·한반도 정세 관련 3국의 공동 대외메시지를 발신하기로 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자고 나면 매각·인수·제휴… 적과의 동침도 기꺼이
M&A 큰 장, 재계 판도 바꾼다

대우조선 등 산은發 매물 홍수
SKT·CJ 맞손… 미디어 재편
삼성 떠난자리 유화 3강 체제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CJ그룹의 CJ헬로비전을 인수했고, 삼성은 유화부문을 롯데에 넘기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 보유 회사와 지분을 3년내 매각키로 결정, 새 주인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4·10·12면>

◆ 산은발 기업매물 나온다

KDB산업은행발 기업(지분 포함) 매물이 쏟아진다. 산업은행이 향후 3년 동안 출자전환 후 정상화된 기업 5곳과 중소·벤처 투자기업 86곳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은이 3년내 매각할 대상 매물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 한국GM, 아진피앤피, 원일티엔아이 등이다.

산업은행은 KAI와 대우조선 지분을 각각 26.75%, 31.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한국GM 보유지분은 17.02%다.

보유지분 매각 대상 기업은 산은이 그동안 유동성 지원으로 출자전환이 이뤄졌던 현대시멘트,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유지분이 장부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극 매도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팔겠다는 의미다.

◆ SKT, CJ헬로비전 인수

SK텔레콤은 CJ그룹의 종합유선방송(SO) 사업 계열사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했다. 매각가는 1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는 방송통신 시장의 초대형 사업자 출현과 동시에 국내 통신방송시장 전체에 격변을 초래할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및 CJ헬로비전의 대주주로 지분 53%를 보유한 CJ오쇼핑이 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인수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함께 SK그룹과 CJ그룹이 전략적 사업 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동시에 CJ주식회사가 이사회를 열어 발행 총액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SK텔레콤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CJ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SK와 CJ는 콘텐츠 창작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총 1000억원 규모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역시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 화학사업 정리

삼성그룹이 화학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남아있던 화학계열사를 모두 롯데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3조원 안팎으로 국내 화학업계 최대 빅딜이다.

삼성SDI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케미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지분 전량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금액은 2조5850억원이다. 이와 함께 자사가 보유한 삼성정밀화학 지분 14.65% 전량을 2189억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SDI 외에 삼성전자(8.39%), 삼성물산(5.59%), 호텔신라(2.24%), 삼성전기(0.26%) 등 4개 계열사들도 보유한 지분 전량(31.23%)을 롯데케미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총 매각 지분은 803만11190주로 4650억원 상당이다.

삼성BP화학은 삼성정밀화학 매각에 따라 경영권과 지분이 롯데로 넘어간다. 삼성BP화학은 BP케미칼이 51%, 삼성정밀화학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빅딜로 롯데그룹은 LG화학 및 삼성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들을 인수한 한화그룹 등과 함께 화학분야 '빅3'로 떠오르며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LG화학은 22조5800억원, 한화 석유화학 계열사들은 19조3091억원이며 이번 빅딜로 롯데 석유화학부문은 19조2083억원(지난해 기준)의 매출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김문호·정은미·정문경 기자 kmh·21cindiun·hm0108@

Now it's the management of shareholder value

이젠 주주가치 경영이다



Samsung vice president, Ea Jeayong, took a step with the shareholders. The core of this move is to repurchase treasury stock and proceed with quarterly dividends.

On the 29th, Samsung Electronics announced that it will repurchase treasury stocks of 11.3 trillion won and incinerate it. The stock value also came out pretty good with this news. On the day, the stock value of Samsung jumped over 6%. Samsung closed the market with the steady increase in the stock value for 8 days in a row. Shareholder-friendly policy encouraged the investors to purchase. Of course this repurchase of treasury stock is to boost up the value. But because it also led to an expectation that Samsung Electronics is executing effective-management, this happening could occur.

Samsung Electronics announced over 3 times that it will repurchase treasury stock of 11.3 trillion won on the day of the presentation of performance. This is the biggest amount ever. Samsung was evaluated comparably weak in shareholders-friendly policy compared to IT companies such as Apple, Google and etc.

It looks like Samsung Electronics is committed to listening carefully to the voice of investors and shareholders which is called 'Two Tracks Strategy'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주주와 동행에 나섰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 추진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11조3000억원의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식을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도 화답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까지 8거래일째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다. 주주친화 정책에 투자자들이 '사자'로 화답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자사주 취득 결정이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경영효율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삼성은 이날 실적발표에서 3~4차례에 걸쳐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애플·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비해 배당성향 등 주주친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계획 발표를 통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투자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필리핀에서 **피랍**됐던 70대 한국인 남성이 10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알 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과격세력 아부사야프로 범인들은 지난 1월 납치 이후 가족 등에게 몸값을 요구해오다 이 남성이 질병으로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올해 '중국기업 사회책임발전지수'에서 삼성, 현대차, LG,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 224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고**를 두고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이날 방한한 **카터 미국 장관**은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T2)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새누리당**은 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이미 교육부 고시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국회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민생 돌보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1일 2015년도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 214명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강에 나타난 요트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앞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장관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들이 맑은 가을하늘 아래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산업·경제

▲ 
SK그룹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방위로 나서기로 했다. SK그룹은 100억원을 청년희망펀드에 투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규모는 1500여명 수준으로, 연간 채용도 8000명으로 늘렸다.

▲ **현대·기아차**가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아차는 신흥시장 멕시코에 진출한 지 석달만에 대리점 27개를 추가로 개설한 데 이어 2017년까지 총 65개로 확대하고 현대차는 생산라인 추가 등을 위해 러시아 공장에 약 1억 달러(1138억5000만원)를 투자한다.

▲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조선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특히 '조선 빅3'라 불리는 대우해양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한 때 해양플랜트를 싹쓸이하다가 올해 모두 수 조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휘로 인력 감축, 수주 축소 등 대규모 수술에 들어간다.

▲ **삼성그룹**이 화학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하기로 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남아있던 화학계열사를 모두 롯데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업 육성 전담은행**으로 탈바꿈한다. 산업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 예비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창업기업이나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등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와 영업용 자동차보험를 2%대에서 최고 7%대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 정부가 '**좀비기업**'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약 9조원 가량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적잖은 기업들이 적기에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잇달아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고 호텔롯데 상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회장의 행보가 일본롯데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독립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동서식품**이 커피향기처럼 진한 문화 나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청주에서 '동서커피클래식'과 '맥심 사랑의 향기'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문화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 '**특종: 량첸살인기**'를 통해 3년의 공백을 깬 이하나(33)가 첫 임산부역에 도전했다. 주인공 무혁의 아내 수진으로 분한 이하나는 분량이 많지 않은 배역임에도 이번 작품을 통해 묵묵히 주인공을 빛내주는 조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고 겸손해한다.

▲ 14년을 기다린 곰의 우직함이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졌다. 오랜 기간 기업 체질을 개선해온 두산그룹의 행보처럼 **두산베어스**는 선수층과 코칭스태프가 일심동체가 돼 긴 기다림 끝에 단비를 맞았다. 5차전에서 두산은 삼성을 상대로 13-2 완승을 거뒀다.

"3국 경제통합 공동노력·北 비핵화" 촉구

동북아 평화 협력 공동선언

5대협력 분야 56개항 반영… 한·중·일 협력기금 조성 추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핵심요소인 평화와 협력, 신뢰, 번영을 ▲동북아평화협력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 5대 협력분야 56개항으로 반영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공동선언 전문을 통해 2012년 5월 제5차 정상회의 이후 3년반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한·중·일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내년 일본의 의장국 수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인해 2012년 이후 3년반동안이나 단절됐던 3국 정상회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또 3국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20여개 장관급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와 각종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3국 협력 사무국(TCS) 역량 강화 차원에서 3국 협력 기금(TCF)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중일은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지난해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켰다는 점을 평가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훈련 등 전자상거래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과 관련해선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황사 문제를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황사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핵 관련 "핵 개발 확고히 반대"

아울러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과 관련해선 미래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시키고 교육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개최에 따라 스포츠 협력과 경험 공유를 위한 3국 간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과 관련해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지난 8월 일촉즉발로 치달았던 한반도 긴장상태가 남북 8·25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고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일은 북핵문제와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하는 한편 3국 간 비확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한·중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리커창 총리 초청 간담회' 10대 그룹 총수 대거 참석

박용만 회장 환영사 통해 "세번 만나면 친구가 된다"

방한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일 한국 재계 총수들과 만나 한·중 경제 협력 발전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초청 한국 경제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 총리를 비롯해 왕이 외교부 부장, 쉬야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완강 과학기술부 부장,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 천지닝 환경보호부 부장, 가오후청 상무부 부장,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장정웨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등 정부 인사와 기업인 100여명이 자리했다.



방한 중인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이날 리커창 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혁신해 나가면 양국 경제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중·한 기업이 협력하면 중국 시장뿐 아니라 제3국의 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전 70주년을 언급하며 "양국은 외부 침략과 식민 지배 경험이 있다"며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무역발전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측은 처음으로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도 발전해야 한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금융, 통신서비스 등 규범 설정에 있어 한국에 대한 개방폭이 다른 나라의 FTA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중서부지역의 '중·한 혁신단지' 설립 계획을 언급하며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에서 혁신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글로벌 우려와 관련해 리 총리는 "많은 경제지표가 파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폭의 파동은 없을 것"이라며 "소폭의 파동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중 경제인 간의 만남은 올해 들어 세번째다. 대한상의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왕양 중국 부총리 초청 간담회'를, 9월에는 상하이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박용만 회장은 환영사에서 '처음 만나면 낯설고, 두 번 만나면 익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친구가 된다(一回生, 二回熟, 三回就是好朋友)'는 중국 속담을 인용해 "오늘 행사를 통해 양국 경제인이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가 양국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통한 협력도 역설했다. 박 회장은 또 "인프라 분야에 경쟁력이 높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한국, 중국, AIIB로 이어지는 삼각협력 기회를 늘리고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재계 총수 10여명과 30여분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정몽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활성화 정책에 호응해 하이브리드자동차 현지 양산 현황과 전기차 사업 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 양국 간 경제협력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고 현대차 관계자는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JY의 실용주의, 삼성을 혁신하다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SDI 케미칼 부문 분할 롯데그룹과 3兆 규모 빅딜 계열사 지분까지 전량 매각

배터리·전자재료사업 집중 전기차에 5년간 2조원 투자

삼성그룹이 화학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하기로 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한화그룹에 관련 사업을 넘긴 바 있다. 약 1년 만에 화학사업을 완전 정리하기 위해 롯데그룹과도 '빅딜'을 단행한 것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남아있던 화학계열사를 모두 롯데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3조원 안팎으로 국내 화학업계 최대 빅딜이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삼성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 합병을 결정한 이후 그 해 11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한화그룹에 넘겼다. 이번 빅딜로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까지 롯데에 추가로 매각하면 그룹 내 화학사업이 완전히 정리된다.

삼성SDI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케미칼 사업 부문은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지분 전량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금액은 2조5850억원이다.

이와 함께 보유한 삼성정밀화학 지분 14.65% 전량을 2189억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SDI 외에 삼성전자(8.39%), 삼성물산(5.59%), 호텔신라(2.24%), 삼성전기(0.26%) 등 4개 계열사들도 보유한 지분 전량(31.23%)을 롯데케미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총 매각 지분은 803만11190주로 4650억원 상당이다.

삼성BP화학은 삼성정밀화학 매각에 따라 경영권과 지분이 롯데로 넘어간다. 삼성BP화학은 BP케미칼이 51%, 삼성정밀화학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자산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매각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업개편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이후 '선택과 집중'과 '실용주의'를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후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삼성에버랜드의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하고 유가증권에 상장했다. 지난 5월 삼성물산과 합병한 뒤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해 지배구조까지 재편한 바 있다.

삼성은 화학 계열사를 정리한 뒤 전자와 바이오, 두 개의 큰 축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SDI는 내년 상반기 케미칼 사업부문 매각이 끝나면 '배터리 사업부문'과 '전자재료 사업부문'에 집중한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앞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내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IT·전자의 올해 시설투자비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총 예상투자비 27조원 가운데 반도체에 15조원, 디스플레이어 5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매각과 사옥이전 등의 재편작업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택과 집중에 맞춘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삼성그룹의 계열사 재배치 작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産銀은 중견기업 키우고, 企銀은 스타트업 육성

IB업무 축소 정책금융 강화 산업구조개편에 역량 집중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업 육성 전담은행으로 탈바꿈한다.

산업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 예비중견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 민간과의 시장마찰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은 투자은행(IB)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그에 따른 유휴 인력을 기업 구조조정이나 리스크 관리 부문으로 돌리기로 했다.

기업은행(기은)은 창업기업이나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중견기업 육성·지원 강화에 방점

산은 기능 개편안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 간의 중첩된 역할 재조정과 민간과의 마찰 최소화이다.

우선 기은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기능 중첩을 피하기 위해 산은은 기업 성장단계 가운데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예비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도 강화한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각종 정책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견기업 지원과 육성에 투입되는 자금은 2014년 21조6000억원에서 2018년 30조원으로 늘리고,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기업성장 단계별 역할 강화>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대신 온렌딩(간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82개에 불과한 지점 영업망으로는 소규모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능은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 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협업해 공동투자나 간접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장기업 활성화 인수합병(M&A) 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모험자본의 투자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는 '세컨더리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후행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시리즈 투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되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줄인다.

◆ 기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집중

성장산업에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역할은 산은과 기은 모두 강화한다.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 민감 산업에 대한 대출은 재점검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은 두 은행 모두 늘리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산업은행이 이미 개설 중인 기술거래플랫폼(기술거래마트)은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기민감 산업은 기존 대출을 재점검하고 한계기업은 수시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 정상화 가능성을 엄정히 판단해 신속한 구조조정도 펼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은행은 창업·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현재 전체 지원비중의 0.6%에 불과한 투자 기능을 보강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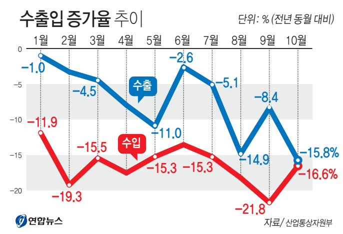
기은의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2014년 기준 연간 9조1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15조원(전체 지원비중의 30.0%)으로 늘어난다.

기은은 또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해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은은 '기업금융나들목'(정책금융포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린다. 기은은 '기업투자정보마당(가칭)'(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투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금융기관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10월 수출액 435억 달러 6년 만에 최대폭 감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수출액은 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오던 연간 교역 1조 달러 행진도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지난 8월 -15.1%로 기록한 6년 만의 최대 낙폭 수치를 2개월 만에 경신한 셈이다.

다만 비교 대상이 역대 최고치인 516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이라는 점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커보였다. 기저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셈이다.

실제로 10월 수출액만 놓고 보면 -8.4%를 기록한 지난 9월과 거의 같다. 400억달러를 넘지 못한 지난 8월보다도 액수 자체는 크다.

하지만 무선통신기기를 뺀 거의 모든 주력 품목의 수출이 계속 부진한 채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은 여전히 한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신동빈 '계열사 3만주' 매입… 日과 고리 끊기

롯데측 "지분싸움 아닌 책임경영 강화 차원"
'호텔롯데 상장'… 신동주, 독자 행보에 직격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고립무원되나.'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 계열사 지분 매입과 호텔롯데 IPO(기업공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재계는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신 회장의 행보가 일본과의 고리를 끊는 롯데의 독립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신 회장은 지난달 30일 삼성 화학계열사 매각인수계약을 체결한 '빅딜' 이후 롯데제과 주식 3만주를 추가 매입, 개인 지분율을 8.78%까지 늘렸다. 신 회장은 지난 8월에도 롯데제과 주식 1만9000주(1.34%)를 매입했다. 롯데제과는 롯데쇼핑 7.86%, 롯데칠성 27.66%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로 '호텔롯데-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계열사'로 이어지는 롯데 지배 구조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신동빈 롯데 책임경영 중심에 서다

1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롯데계열사 지분 개인 매입은 순환출자 정리를 넘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의 아킬레스건은 절대적으로 경영권을 주장할만한 지분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 '광윤사'의 지분 51%를 확보해 실질적인 최대 의결권자로 존재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계속해서 자신이 롯데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이유다. 다만 지난 8월 신 회장이 대국민 약속을 통해 밝힌 롯데 순환출자 80%해소, 호텔롯데 상장이 완료된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우선 순환출자 해소가 호텔롯데와 신 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국 롯데의 지배력은 호텔롯데와 신 회장에게 집중된다. 충분한 지분 매입으로 순환출자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호텔롯데가 상장된다면 일본 롯데의 지배력은 급감하게 된다.

◆호텔롯데 상장은 한국롯데 독립 첫 발

그동안 한국롯데는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94.5%)가 일본 롯데홀딩스로 일본 롯데의 지배 아래 있었다.

호텔롯데가 상장되며 신주가 발행된다면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희석된다. 특히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 있는 신 전 부회장은 더 이상 한국 롯데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상장은 단순히 경영 투명성 제고를 넘어 일본 롯데의 지배아래 있는 한국롯데의 독립을 의미한다"며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자신의 영향력이 희석되는 호텔롯데 상장을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 내부가 소란하지만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은 내년 초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호텔롯데의 상장은 계속되고 내년 초에 완성할 것"이라며 "최근 이뤄지고 있는 신 회장의 롯데계열사 지분 매입 역시 지분싸움으로 해석할 것이 아닌 책임경영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두 자녀 허용… 육아용품시장 기지개?

2015
5중 전회 ❷

출산 늘며 내수증가 기대감
일부선 "효과 없다" 회의론


지난 30일 베이징의 거리. 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외출 나온 어머니들과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소비시장의 빅뱅을 예고하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35년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결과다.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육아·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성급한 전망이란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이미 2년 전에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고, 중국 사회가 전반적인 저출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마친 뒤 공보를 통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5중전회는 그 배경에 대해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며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쳤다. 인구 고령화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노동력이 보충되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참 뒤의 일이다. 당장의 관심이 소비시장 활성화로 몰리는 이유다. 중국의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는 2018년 중국의 영·유아 산업이 올해보다 58% 커진 3조196억위안(약5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분유·기저귀·유제품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뛰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두 출산율이 크게 늘어 관련산업 소비가 폭발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인 9000만쌍이 '두 자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매년 500만명 정도의 신생아를 출산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바로 이 통계다.

2년전 열린 18기 3중전회는 이미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부모 가운데 1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를 허용하는 이른바 '단두얼하이(單獨二孩)' 정책이다. 이전까지는 부모 모두가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갖도록 허용했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산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때는 1979년이다. 현재의 20~30대는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다. 단두얼하이 정책이 사실상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단두얼하이 시행 직후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매년 150만명 정도의 신생아 출산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중국 출산인구의 10% 수준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육아용품 시장은 물론이고 의류, 교육, 자동차, 주택 시장에 붐이 조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단두얼하이 시행 이후에도 출산율 증가는 미미했다. 2014년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명에 그쳤다. 사실상 2년전부터 '두 자녀' 정책이 전면화됐다고 보면 더 이상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생활비 부담과 육아 복지 미비로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중국에서는 도시의 높은 주택가격, 제한적 의료보장, 제한적 공립교육, 맞벌이 부부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 등 출산을 막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러시아 여객기 추락 원인
IS 소행? 기체 결함?

224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고를 두고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샤리프 이스마엘 이집트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여객기가 날고 있던 9000m높이에서는 항공기가 격추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도 IS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아파트 집단대출 '제동'… 사실상 '공급조절'

금융당국, 건전성 검사

대출 거부·금리 인상 등 시중 은행들 깐깐해져

건설사 "분양시장에 찬물 신규사업도 난항" 반발

금융당국이 332조에 달하는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대출)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주택 분양시장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제공을 꺼리면서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가 하면 은행들의 대출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 집단대출 규제 분양시장 찬물

1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단달 하순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에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보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적격성 검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331조8844억원으로 지난 7월 말 가계부채 발표 당시(321조5709억원)에 비해 10조3000억원가량 증가한 상태다.

분양 물량이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난 대출은 가계부채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출에 적극적이던 시중은행 지점들은 금융당국의 지시 이후 중도금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등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중견 건설사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았던 A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다른 건설사는 한 시중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의를 마치고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최근 금융당국의 지시로 대출이 어렵게 됐다며 은행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은행들이 깐깐해지면서 중도금 대출 금리도 종전 연 2.5~2.75% 선에서 불과 보름 만에 최고 1%포인트 높은 3~3.5%까지 올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은행끼리 경쟁을 붙여야 금리가 낮아지는데 들어오는 은행도 없고 있어도 높은 금리를 요구하니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며 "10월 분양한 아파트만 해도 금리가 2.5~2.7%였는데 분양성이 양호하고 회사 신용도가 높은 곳도 대출금리가 3%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에 은행이 직접 중도금을 빌려준 현장의 자금관리까지 맡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건설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토지대금 등 사업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도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건설사의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 집단대출 축소로 사실상 '공급조절'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인 대출 관리를 통해 사실상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총 38만6000가구로 연말까지 50만2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도 9월 말 현재 54만140가구로 올 한해 70만 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택 분양·인허가 물량이 늘며 공급과잉 논란이 지속되자 내심 대출금 축소 등 금융규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분양물량을 줄이는 규제 카드를 고민해 왔다.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도 관리하면서 공급물량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올해 들어 나아진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은 "현재 분양수요의 상당수가 30~40대로 중도금 대출 없이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계층"이라며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알선 은행도 6대 은행이 아닌 지방이나 기타 은행으로 밀린다면 분양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현재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절반을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금 대출인데 이런 대출은 놔두고 집단대출에만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양물량이 늘었다고 모든 지역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세난 해결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대출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수능 D-10일' 마무리 전략은

충분한 수면·긍정적 마인드… 컨디션 관리해야

새 문제집 등 추가 학습계획은 삼가야
기존 오답노트 재확인… 실수 없도록

2016년도 대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려면 남은 기간에 학습은 물론 생활과 컨디션 관리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지금 시기에 겪는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등이 모든 수험생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시전문기관들의도움으로수능 D-10 전략을 살펴본다.

◆ 욕심을 버리자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부족한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등의 추가 학습계획을 지금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접하기보다는 그동안 시험을 봤던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를 차근차근 다시 풀어보자.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숙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봐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오답노트를 이용해 자신이 틀린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중·상위권 학생이라면 실제 수능시험 당일의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좋다. 여기서도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오답노트에 기입해 수능 당일까지 반복해서 보며 적응력을 키우자.

◆ 수능 당일에 맞춰 연습하자

하루 계획을 실제 수능 당일의 일정에 점차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

밤늦은 시각까지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이제부터는 오전부터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시험 과목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다. 시계나 지우개 등 준비물도 될 수 있으면 자신이 평소에 쓰던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서울 강남구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자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4당 5락'은 옛말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5시간 이상의 수면이 학습 능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수면과 영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자.

적당한 긴장감은 실수를 방지하고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지나친 긴장감은 평소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루의 공부 계획을 실제 수능 당일과 유사하게 맞춘다면, 실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다.

◆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리자. 수능 당일에 가뿐하게 시험을 마치고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 친구와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기분 좋은 상상을 자주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 콘트롤은 자신감을 높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족들도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말을 자주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수능 당일까지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은 중위권 이하 수험생이라면 다른 교재를 들춰보기보다는 EBS 교재를 한 번 더 훑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근 수능에서는 EBS 교재에 실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해서 활용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유선준 기자 rsunjun@

노화와 질병의 원인 **수소수가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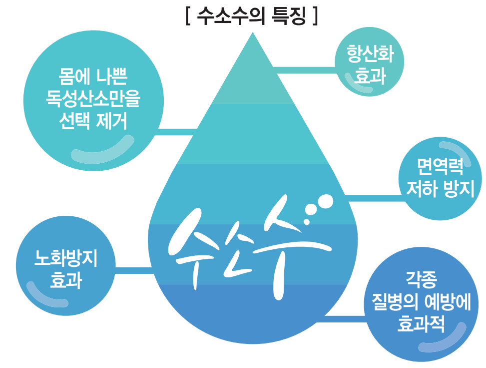
수소가 선택적으로 독성산소의 상해로부터 세포를 지킨다 – Nature Medicine 저널 발표



수소수가 답이다
지음 **임동수·김서곤**
출판사 **상상나무**
200쪽 | 값 13,500원

Contents / 수소水가 답이다!





질병의 90% 이상은 독성산소가 원인이다

활성산소는 면역기능에 사용되는 좋은 활성산소와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활성산소(독성산소)로 나뉜다. 독성산소의 발생은 고강도의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과식, 음주, 흡연 및 환경오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결국 세포를 병들게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회 이상 호흡하며, 양으로 따지면 1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호흡을 통해 드나든다. 호흡으로 흡수되는 산소는 1,500리터에 달하며, 이중 2~3%(약 30리터)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 활성산소(독성산소)가 된다.

독성산소는 세포안에 DNA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DNA 구조가 깨져 돌연변이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독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며, 뇌출혈, 치매는 물론 루게릭,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에이즈, 당뇨병,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질병의 90%가 바로 독성산소가 원인이다(미국 존스홉킨스대 의학보고서). 결국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전염병의 70%를 예방해준다. 독성산소는 인체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 속 독성산소를 씻어주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요, 지름길이다.

기적의 항산화제, 수소

인체에는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인체 내 천연효소로서 항산화효소(SOD)가 있다. SOD는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생성되지만, 35~40세가 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수소는 독성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인체 각 기관 및 뇌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제이다. 수소는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865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다.

기적의 비밀은 수소수

최근 학계에서는 미네랄워터, 심층수, 탄산수에 이어 수소수를 주목한다. 프랑스 루르드의 샘물, 독일 노르데나우의 물, 인도 나다나의 우물 등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물을 분석한 결과, 기적의 원인으로 생각할만한 특별한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던 2007년 5월, 미국의 과학지 '네이처 메디슨'은 일본의과대학 대학원 오타 시게오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수소가 활성산소(독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수소를 녹인 물이 강한 산화력을 가진 독성산소인 '하이드록실 래디칼(Hydroxyl Radical)'을 제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전 세계에서 치유의 물로 일컬어지는 물들이 수소수 연구실로 모이게 되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적의 물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물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밝혀냈다. 기적의 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수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성산소만을 제거하는 수소수!

물은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근원이다.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어 온 몸을 순환하는데, 30초 후면 혈액에 흡수되고, 1분 후 뇌, 생식기, 태아에 전달된다. 10분 후엔 피부조직, 20분 후엔 간, 심장, 신장에 도달하며, 동시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인체 어디든 가며, 따라서 수소수는 몸 속 독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전국서점 판매중** **도서출판 상상나무**

문의 031.971.4800/www.smbooks.com

청년 비상·고용 디딤돌… 2만여개 일자리 창출

SK그룹 '청년 일자리 창출' 전방위로 뛴다

SK그룹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방위로 나서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달 28일부터 2박 3일간 제주에서 개최된 CEO세미나에서 기업의 역할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결의하면서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SK그룹은 이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 고용 확대에 이어 청년들의 대기업 중심의 취업문화를 바꾸기 위한 청년고용 디딤돌 프로그램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비상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희망펀드 100억원 규모 가입

이번 CEO세미나를 통해 SK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경영진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각계에서 활발하게 가입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개인 사재 출연금 60억원과 모든 관계사 CEO와 임원이 출연하는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청년희망펀드에 투자한다

SK그룹 관계자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의 마중물로 범 사회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의 취지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전 관계사 CEO들이 공감해 적극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태원 회장은 CEO 세미나에서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 청년실업 문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할과 지원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달 28일부터 2박3일간 제주에서 열린 2015 SK CEO 세미나에서 클로징 스피치를 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적극 확대

SK그룹은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연초 예정보다 늘려 공채를 하고 있다. 하반기 공채와 수시채용을 통해 선발할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규모는 150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300명보다 15% 정도 높여 잡았다.

또 연간 채용 규모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당초 7000여명을 뽑기로 했다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8000명으로 늘렸다.

SK는 또 청년들의 취업 문화를 개선하고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청년 비상'과 '고용 디딤돌'이라는 두 개의 2개년 프로젝트도 추진해 각각 4000명과 2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SK가 중심이 돼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SK의 협력사 등에서 인턴십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달 중에 모집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청년 비상 프로젝트는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 있다.

이만우 SK그룹 커뮤니케이션위원회 PR팀장 부사장은"국가와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만큼, 이번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의 일자리 창출 사재출연을 계기로 SK 그룹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전자, 11월 한 달간 인기 제품 '패밀리 세일' 실시

삼성전자가 11월 한 달간 TV·냉장고·세탁기·김치냉장고·청소기·공기청정기·PC 등 7개 품목의 인기 신모델 등을 특가로 판매하는 '패밀리 세일'을 실시한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1일 삼성 디지털프라자 홍대점에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인기 가전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예열 없는 '스피드 오븐플러스'로 유럽 공략

LG전자

조리 시간·에너지 사용량 줄여

LG전자는 조리시간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스피드 오븐 플러스를 출시하며 유럽 오븐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프랑스에 스피드 오븐 플러스를 출시한 데 이어 스페인 등으로 출시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피드 오븐 플러스는 예열이 필요 없어 구동 즉시 조리를 시작하고 원적외선을 이용해 음식을 빠르게 조리한다. 기존 대용량 오븐에 비해 사용 시간을 1/3로 줄였다.

또 1~2인분의 요리에 적합한 38ℓ 용량을 적용해 대용량 오븐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도 40% 가까이 줄여준다.



LG전자 직원이 프랑스 파리의 쇼룸에서 스피드 오븐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조리 시간과 전기 사용량을 줄인 스피드 오븐 플러스를 유럽에 출시한 것은 철저한 고객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LG전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은 주중에는 주로 1~2인분의 음식을 요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용량 오븐이 예열 시간이 길고 전기 사용량도 많다는 점을 불만으로 꼽았다.

LG전자는 빌트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럽 오븐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주방 가구장에 스피드 오븐 플러스를 매립해서 쓸 수도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유럽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오븐 사업을 강화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빌트인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빌트인을 찾는 고객들은 주방 가전 패키지를 구매할 때 마음에 드는 오븐 브랜드에 맞춰 나머지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반영한 제품을 바탕으로 유럽 오븐시장에서도 가전 명가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벼랑 몰린 조선업… 구조조정 '칼바람'

빅3, 최대 1만여명 감축 중소업체간 통폐합 추진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조선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특히 '조선 빅3'라 불리는 대우해양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한 때 해양플랜트를 싹쓸이하다가 올해 모두 수 조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휘로 인력 감축, 수주 축소 등 대규모 수술에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최대 1만여명이 2~3년 내에 감원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의 칼날을 조선과 해운업 등 한계 기업에 겨누고 있다. 조선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1%에서 지난해 18.2%로 5년 사이에 12.1%포인트 늘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경제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은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조선업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돈줄을 쥔 대우조선은 자금 지원의 대가로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대우조선은 이미 임원과 부장급 고직급자를 30%가량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 차례로 직영 인력의 30%가량을 정리한다. 수익 구조와 인력 운영이 비슷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나머지 조선업체들이다. 성동조선의 경우 이미 삼성중공업이 경영 위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군소업체들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1~2년 내에 통폐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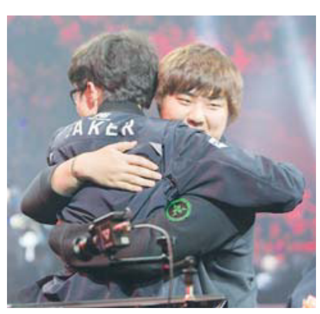
이미 정부는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 지역 등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새로운 주력 업종을 개발하고 취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SK텔레콤 T1 '2015 롤드컵' 우승

2013년이어 두 번째

e스포츠의 정통 스포츠화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게임즈(한국대표 이승현)는 세계 최고 권위의 LoL e스포츠대회인 '2015시즌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에서 SK텔레콤 T1이 쿠 타이거즈를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의 우승의 중심에는 '페이커'가 있었다. 지난 31일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개최된 롤드컵 결승전은 일찌감치 전석이 매진된 가운데 경기장에 가득 들어찬 1만 2000여명의 관객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진행됐다. 그 결과 SK텔레콤 T1이 쿠 타이거즈를 세트스코어 3:1로 누르고 완승하며 '소환사의 컵'과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이로써 SK텔레콤 T1은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왕좌에 오르며 롤드컵 역사상 최초로 2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롤드컵 우승을 확정짓고 얼싸안은 SKT T1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뱅' 배준식 선수. /SKT

이로써 10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을 거치며 한 달 동안 전세계 e스포츠 팬들의 관심 속에 펼쳐진 롤드컵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유럽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롤드컵은 대회가 열리는 장소마다 수많은 팬들이 운집하며e스포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콘텐츠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기아車 '신흥시장 맞춤형 공략' 가속화

기아, 멕시코 진출 등 현지화… 신형 K5 도입
현대, 1억달러 들여 러시아 공장 인프라 개선



현대·기아차가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아차는 신흥시장 멕시코에 진출한 지 석달만에 대리점 27개를 추가로 개설한 데 이어 2017년까지 총 65개로 확대하는 등 현지화 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7월 멕시코시티 등 10개 도시에 21개 공식 대리점을 오픈하며 멕시코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기아차는 멕시코 진출 첫 달인 7월에 1499대를 팔아 BMW, 스즈키, 벤츠 등을 제치고 단숨에 판매 순위 11위에 올랐다. 이어 8월 1620대, 9월 1711대 등 매달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기아차의 순위는 석 달간 1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10위인 르노를 300여대 차이로 추격하고 있어 연내 10위권 진입도 점쳐진다.

기아차는 또 멕시코 진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현지 딜러 대표 2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판매를 독려했다. 이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기아차의 생산·판매와 연구개발 거점을 견학하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에 참가했다.

현재 기아차는 멕시코 시장에서 K3(현지명 포르테),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형 K5(현지명 옵티마)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부터는 누에보 레온 주에 건설 중인 연산 30만대 규모의 기아차 공장이 가동되면 멕시코를 넘어 북미, 남미까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생산라인 추가 등을 위해 러시아 공장에 약 1억 달러(1138억5000만원)를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9~10월로 예정된 크레타 소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과 신형 쏠라리스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변경, 스템핑, 보관창고 등 공장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완공된 러시아 공장의 초기 투자비용은 6억 달러(약 6831억원)였다.

9월까지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12만대를 판매했다. 4분기에는 생산량이 소폭 증가해 올해 연간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생산량은 3.8% 감소한 22만8000대로 예상된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지만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조업중단이나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올해 9월까지 현대차의 러시아 점유율은 2.5% 포인트 상승한 10%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역대 월간 최고 시장점유율인 22.1%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크레타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로 확대해 인도에서의 돌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원경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아차의 경우 멕시코 공장이 완공되면 중동과 중남미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신차효과로 인한 매출 증가와 수익선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삼성 "다시 없을 파격할인 누리세요"

유류비·개소세 지원 등
할인행사로 고객잡기



르노삼성자동차가 11월부터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QM5 디젤의 경우 최대 335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 한다.

르노삼성자동차가 11월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판촉 경쟁에 나선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일 유류비 최대 200만원 지원, 무이자 '밸류박스', 개소세 더블 혜택 등 구매혜택을 더욱 높인 11월 판매조건을 선보였다.

QM5 디젤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60만원(4WD RE) 할인, 유류비 200만원 지원, 75만원 상당의 아트컬렉션 옵션 등 최대 335만원 가격 혜택을 누린다.

QM5 디젤을 현금 대신, 특별금리 할부, 해피케어 보증연장 서비스, 신차 교환 보장 프로그램, 스마트 운전자 보험 등 신차가치를 높이는 유럽형 구매 패키지 밸류박스를 이용하면 개소세 인하에 따른 최대 60만원의 가격 혜택과 함께 ▲추가 100만원 할인 ▲무이자 할부 ▲5년/10만㎞ 보증하는 전문 차량 관리 프로그램 ▲신차 구입 3년 이내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주는 신차 교환 보장 프로그램 ▲3년간 운전자 특별 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QM3를 현금 구매 시 개소세 인하액 최대 47만원과 개소세 더블 혜택 50만원, 관세 인하에 따른 추가 80만원, 15만원 상당의 스키드 세트 무상 제공까지 총 192만원의 가격 혜택을 누린다. QM3를 밸류박스로 구매하면 개소세 인하에 따른 최대 47만원의 가격 혜택과 스키드 세트 무상 제공과 함께 ▲무이자 할부 ▲보증 연장 ▲신차 교환 프로그램 ▲운전자 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SM5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유류비 70만원을 제공하며 SM5 TCE 고객에게는 추가로 100만원 할인, 개인택시 고객은 타이어를 제공한다. SM5도 밸류 박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0.5% 저리 할부가 적용된다.

SM7은 가솔린 모델의 경우 현금 구매시 유류비 50만원 지원과 트림별로 45만~76만원 상당의 아트컬렉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고급세단의 편안함과 LPG의 경제적 혜택을 갖춘 SM7 LPe는 2000대 판매 돌파를 기념해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SM3는 현금 구매시 유류비 80만~100만원 지원과 함께 30만원 상당의 아트컬렉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할부 구매시에는 50만원 할인 혜택과 더불어 1.5%(36개월) 저리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현대 '쏘나타' 탄생 30주년 스페셜 모델 출시

쏘나타 와일드 버건디
300대 선착순 한정 판매



현대차 '쏘나타 와일드 버건디' 내부 모습.

현대차가 대한민국 대표 중형차 '쏘나타' 탄생 30주년을 기념하며 스페셜 모델 '쏘나타 와일드 버건디'를 출시했다.

'쏘나타 와일드 버건디'는 기존 1.6 터보 모델에 사양 및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4일부터 300대 선착순 한정 판매에 들어간다. '와일드 버건디'는 스페셜 모델의 강화된 동력 성능과 내부 시트 색상의 특징을 합친 이름이다.

우선 현대차는 강인하고 스포티한 터보 전용 디자인에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를 강조한 전면부 ▲30주년 엠블럼 18인치 휠 등을 장착해 고급스러운 측면부 ▲듀얼 머플러를 적용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로어 범퍼로 스포티함을 강조한 후면부로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실내 디자인은 ▲최초 적용된 '버건디&코퍼' 전용 칼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 ▲300대 한정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어 스커프에 각인된 '1/300' 문구 등으로 고객에게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차별화된 특별한 감동을 제공한다.

'쏘나타 와일드 버건디'의 외장 컬러는 '아이스 화이트', 내장 컬러는 '버건디&코퍼'로 운영된다.

기존 쏘나타와 비교해서는 차별화된 디자인은 물론 ▲HID 헤드램프 ▲앞좌석 통풍 시트 ▲프리미엄 나파 가죽시트 등 고객 선호 사양을 탑재했음에도 가격인상은 1만원으로 최소화했다.

'쏘나타 와일드 버건디'의 판매가격은 2760만원이며, 해당 모델은 강남 도산대로에 위치한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운영할 '쏘나타 헤리티지전'에 1~6세대와 함께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전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쏘나타 와일드 버건디

대한항공

'사랑나눔 일일카페' 행사서
호주의 다양한 매력 소개

대한항공은 지난달 31일 서울 삼성동 '유익한 공간 삼성점'에서 '대한항공 제 25회 사랑나눔 일일카페' 행사를 열었다.

'호주 ON-AIR! 호주의 매력을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 직원들과 SNS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일일카페 행사는 호주 여행 정보 소개, 대한항공 승무원과의 티타임은 물론 각종 체험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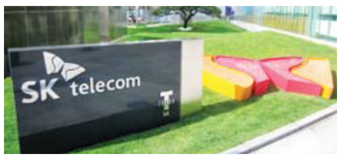
참가자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오는 12월부터 인천~시드니 노선에 투입되는 A380 항공기의 운항 및 객실 승무원들을 초청해 평소 승무원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는 '티타임'을 가졌다. /양성운 기자

SKT, 미디어 플랫폼 강화… 성장 정체 돌파

CJ헬로비전 전격 인수

방송 가입자 규모 확대 등 유선통신시장 경쟁력 확보

SK-CJ, 전략적 협력 합의 1500억 규모 유상증자 참여



SK텔레콤이 국내 1위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미디어 기반 플랫폼 사업 집중강화에 나선다. SK텔레콤의 '100조 기업가치' 목표달성뿐 아니라 그룹의 성장 정체의 해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수와 함께 SK그룹과 CJ그룹은 전략적 사업 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그간 물밑 논의를 해왔고 최근 CJ그룹이 코웨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협상에 탄력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시기는 내년 4월이 유력하다.

이동통신사업자 1위 SK텔레콤의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 인수는 SK그룹과 CJ그룹의 이해관계가 부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SK그룹은 CJ헬로비전 인수로 당장 유선통신 시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J헬로비전 시가총액은 8000억원 수준으로 경영권 인수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CJ그룹은 당장 코웨이 인수 비용 충당을 위해 CJ헬로비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유무선 통합 고도화로 유선 플랫폼만으로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양사간 합병이 성사될 경우 방송통신 시장의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으로 IPTV와 케이블TV 등 방송 가입자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CJ헬로비전의 유선 네트워크도 활용 가능한 만큼 유선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CJ헬로비전의 사업권역이 수도권 밖 지방으로 넓게 퍼져 있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케이블TV는 3년 이상 장기계약이 많아 가입자 손실 가능성도 낮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간 결합상품 경쟁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CJ헬로비전 인수로 결합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으로 경쟁력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CJ그룹과 콘텐츠 제휴까지 감안하면 인수 효과는 배가된다. CJ그룹은 최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 E&M과 홈쇼핑업체인 CJ오쇼핑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양사가 콘텐츠 제공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 IPTV와 케이블TV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함께 SK그룹과 CJ그룹이 전략적 사업 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1500억원 규모의 CJ주식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SK와 CJ는 콘텐츠 창작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총 1000억원 규모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CJ주식회사는 2일 이사회를 열어 발행 총액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 SK텔레콤 역시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SK텔레콤은 약 2%의 CJ주식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업계는 SK텔레콤이 CJ그룹 지주사인 CJ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것은 양 그룹이 향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갖겠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디어 플랫폼 강자인 SK텔레콤과 미디어 콘텐츠를 보유한 CJ그룹이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마련한 '기어 S2 휠 퍼포먼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기어 S2'의 다양한 혁신 기능을 BMX 자전거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기어 S2' 혁신기능 직접 체험하세요"

삼성 '휠 퍼포먼스' 진행 BMX 자전거 통해 표현

삼성전자가 '기어 S2'의 원형 휠과 새로운 혁신 기능을 자전거로 표현하는 '기어 S2 휠 퍼포먼스' 행사를 연다.

삼성전자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기어 S2'의 원형 휠과 새로운 혁신 기능을 BMX(Bicycle Motocross) 자전거로 표현하는 '기어 S2 휠 퍼포먼스' 행사를 8일까지 연다고 1일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원형 휠에 LED를 장착한 BMX 자전거 라이더들이 선보이는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영상을 통해 '기어 S2'의 다양한 혁신 기능을 볼 수 있다. '워치 페이스' 'S헬스' '티머니' '골프나비' '통화' '문자' 등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된 퍼포먼스는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기어 S2'의 새로운 기능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행사장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기어 S2'의 원형 디자인과 사용자경험(UX),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함께 운영된다.

체험존에서는 사용자의 운동량을 체크하고 기록하는 'S헬스', 대중교통과 편의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티머니', 홀까지 남은 거리와 필드의 고저차를 측정해 주는 '골프나비' 등 '기어 S2'의 다양한 국내 특화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구매도 가능하다.

'기어 S2 휠 퍼포먼스'는 1일 한강시민공원 반포, 뚝섬, 잠실 등에서도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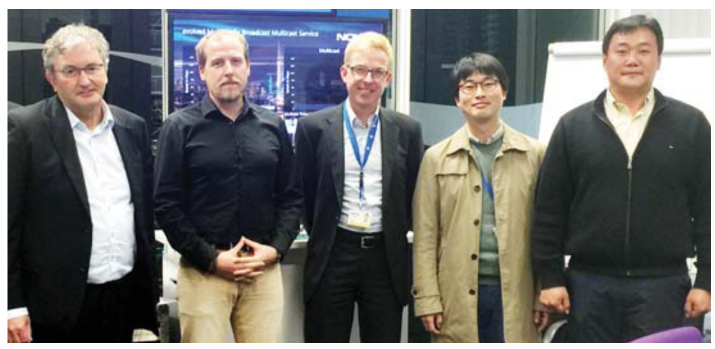
삼성전자 관계자는 "BMX 자전거의 원형 휠을 통해 기어 S2의 자유로움과 역동적인 매력을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어 S2의 혁신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급 동영상 1초내 동시전송 가능해졌다

KT-노키아

세계최초 개발·시연 성공 공연·경기장 등 활용 기대



KT와 노키아 구성원들이 독일 뮌헨의 노키아 연구소에서 기술 시연에 성공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KT

KT는 노키아와 함께 세계 최초로 고화질(HD)급 동영상을 1초 이내의 지연시간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시연하는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대규모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 운집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HD급 동영상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채널 서비스를 1초 이내의 지연시간으로 동시에 전송한다는 것이다.

기술 시연은 독일 뮌헨의 노키아 연구소에서 HD카메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재생까지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카메라 영상 입력에서 스마트폰 재생까지 1초 미만의 시간이 소요돼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향후 이 기술은 평창 동계올림픽, 공연장 등 대중이 모이는 공간에서 빠른 동영상 전송과 재난 상황에서 원격 영상 전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빠른 응답속도가 요구되는 자율주행 차량, 지능형 교통망 등 미래형 5G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면 KT 융합기술원 원장은 "그동안 5G R&D 센터를 개소하고 밀리미터 웨이브, 듀얼커넥티비티 등 5G 기술 개발과 차세대 LTE 기술 개발을 선도해온 KT가 기술 시연을 세계 최초로 성공함에 따라 LTE 품질 경쟁은 물론 앞으로 도입될 차세대 5G 무선기술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LGU+, '5G시대' 생활변화 백서 발간

LG유플러스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필요한 3대 서비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5G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5G 백서는 미래의 웨어러블, 센서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를 포함해 홀로그램과 같은 고용량 서비스, 미터기와 같은 데이터량은 작지만 단말이 많은 IoT 서비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설계·구축을 위해 작성됐다.

백서는 5G 시대 생활 양식 변화를 기술 기반으로 풀어내 ▲높은 속도 ▲대규모 접속 ▲저지연율의 5G 서비스 3대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5G 비전, 4G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현황과 진화, 5G 기반 시설,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핵심에 대해 기술했다.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진화 방향에 맞춰 IoT, IoB(Internet of Brain·인간의 뇌와 감성, 생각 등을 대신하는 인터넷 기술)가 현실화될 5G 시대의 선도를 통해 고객들이 기대할 '보다 안전한 삶', '정보의 자연스런 공유와 활용', '지혜로운 소비', '여가 시간의 창출', 그리고 '감성 동반자'라는 다섯 가지 생활 가치를 이번 백서에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업체들과의 5G 관련 협력은 물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가상화 기반 네트워크(NFV) 등 선행 기술을 시연하는 등 5G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정문경 기자

‘좀비기업 퇴출’ 파장… 은행 ‘신용비용’ 폭탄

3분기 성적 악화기업 중심 연말 무더기 강등사태 우려

당국 대기업 상시신용평가 추가 충당금 부담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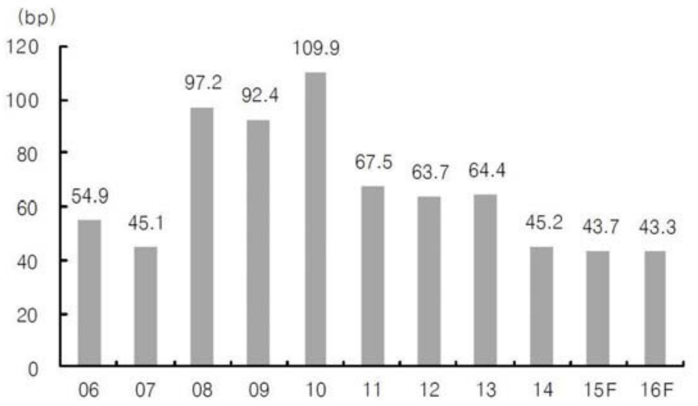
“어려운 때 몇백억원씩 지원했던 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더 내 놓으라고 큰 소리를 치니…. ”(한 중견기업 채권은행 관계자)

정부가 좀비기업 퇴출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적잖은 신용비용(크레딧 코스트)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기업구조조정업무를 맡게 된 11월 중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실사·평가기간, 매각은행과의 협약 등을 거쳐 내년초까지 구조조정 기업 채권, 주식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적잖은 기업들이 실적 부진으로 여유가 없는 데다 향후 기업 회생 전망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은행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1일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은행의 크레딧



<국내은행 연도별 크레딧 코스트 추이와 전망>

자료=각사, 유안타증권

코스트는 43.7bp(1bp=0.01%포인트)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45.2bp보다 감소한 수치다.

대출잔액 중 대손충당금을 쌓는 비율을 ‘크레디트 코스트(credit cost)’라 한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 위험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크레디트 코스트가 1%라면 100억원을 빌려줬을 때 1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했다는 뜻이다.

최근 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신용비용은 줄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한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연초 이후 124 차례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다. 시장에서는 3·4분기 영업성적이 나쁜 기업을 중심으로 무더기 신용 강등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유안타증권 유태인 연구원은 “연말이 가까워져 갈수록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가 시즌 도래로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손충당금>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상반기에 이뤄진 총 194건의 단기등급(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평가에서도 등급 상향 조정 업체 수는 1건, 등급 하향 조정 업체 수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상향 조정 5건 △하향 조정 17건 등이었다. 등급 하향 조정 대상은 실적부진 기업과 과다한 재무 레버리지(기업에 타인자본)를 보유한 그룹 계열사들이었다. 동부, 현대, 한진, 대성산업 등의 그룹계열과 해운, 건설, 철강, 증권 등의 업종이 여기에 속한다.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은 2009년 2698개(12.8%)에서 지난해 말 3295개(15.2%)로 늘었다.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줬다가 부실화된 대출은 2009년 13조7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21조6000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감독당국의 대기업 상시신용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 부담도 예상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0.49%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는 환입 요인(2003년~2004년 카드 대란에 따른 대규모 상각여신, 개인 소액채권 회수)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문제된 여신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담보보다는 신용여신이 많아 회수 가능성에 적잖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부담이 커지자 은행들도 적극적인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서고 있다. 신규 부실채권 감소로 주요 은행의 올해 2·4분기 부실채권(NPL)은 1.30%까지 떨어졌다. 2013년 4분기는 1.62%에 달했었다.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를 낮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떨어뜨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4년 이후 2015년까지 높은 자산성장률이 이어진 가운데 6개월~1년 이후 시차를 두고 신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년 대손비용 개선 속도는 2014년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車보험료, 이달부터 줄줄이 오른다

만성 ‘손해율 악화’ 해소 중·소형사들, 인상 앞장 대형사도 특약 신설 검토 “소비자에 부담 전가” 지적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업계가 각종 특약을 신설, 만성적인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악화 해소에 총력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

메리츠화재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9% 인상하기로 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5.2% 올리고,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는 각각 6.6%, 7.2% 인상한다.

흥국화재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5.9% 올려 인상 대열에 동참한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형업체들은 ‘보험료 책정 합리화’와 ‘고객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며 각종 특약을 신설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중순 업계 최초로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약’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대물배상 금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의 기준에서 선택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1000만원 대물배상에 의무가입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특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신 초과금액 규모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역시 유사한 특약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특약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가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보험업체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위험수위에 근접한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1년 83.4%, 2012년 83.6%, 2013년 86.8%, 지난해 88.3% 등 매년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손해율과 순손실은 비례 관계로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1조1000억원, 누적 적자는 10조원을 넘은 상황이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 손해율을 77% 수준으로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5% 수준이지만, 현재 대부분 업체의 손해율은 80% 이상”이라며 “중소업체 중에는 90%가 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8일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상품의 형태나 가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도 업체들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은 로드맵에서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한 것.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촘촘한 규제망으로 얽혀 있는 보험상품 설계기준도 자율화했다. 면책기간, 장해등급별 보험금 설계, 해약환급금 계산, 자동차보험요율 조정 주기 등과 관련된 설계기준이 삭제됐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필 기자 roman@



IBK기업銀-서울산업진흥원,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윤준구 기업은행 글로벌자금시장그룹 부행장(사진 오른쪽)과 고봉진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보육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 Q&A

미사용계좌, 전화로 ‘간편해지’ 하세요

Q. 오랜만에 집 대청소를 하다가 예전에 서랍에 넣어놓고 쓰지 않는 통장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정리 하려는데 일일이 은행에 가자니 막막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를 쉽게 정리할 수 있게 하려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화를 통한 해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지 적용대상 계좌는 장기 미사용으로 거래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예금잔액 10만원 미만)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 접속해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인증절차에 따라 해지 처리하거나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본인 절차를 걸쳐 해지하면 됩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다른 계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

/김보배 기자 bobae@

회사채 시장 꽁꽁… 우량기업도 돈줄 '뚝'

대우조선사태에 채권 동결
'회사채 9조원' 상환 난항

기업들, 신용등급 하락 땐
"부실 악순환 커진다" 우려

지난 날 회사채 시장에서 운영자금을 빌린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좀비기업'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금융권 문턱은 더 높아졌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부실기업 채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올해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은 빚 상환 걱정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회사채 만기 무사히 넘길까

1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약 9조원 가량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다.

시장 참여자들은 적잖은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하락,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은 금융권에 손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증권사 3곳 이상의 3개월 이내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상장사 39곳 가운데 실제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돈 기업은 19곳이었다. 특히 업황부진으로 고전하는 조선·정유·철강 업종 기업들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신세다.

4·4분기도 걱정이다.

코스피200 기업 중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한 128개 상장사의 4·4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7조4378억원으로 한 달 전(27조7641억원)보다 1.18% 줄었다. 3개월 전(28조5961억원)보다는 4.05% 하향 조정됐다.

투자자들은 'A'등급 회사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10월 들어 'A'등급 회사채 미매각률은 50%대를 웃돈다. A급 회사채 미매각률이 50%를 넘은 것은 동양사태 직후인 2013년 10월 이후 2년만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고삐를 당겼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17개 국내은행 기업 여신담당 부장들을 불러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채권은행들이 기업들을 4개 등급(A~D)으로 분류해 C등급은 워크아웃으로,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로 유도하라는 것.

채권은행들은 적어도 150개 이상 기업들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실기업들은 부실채권 관리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암코는 4조2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크레딧 시장 한 관계자는 "생존 여부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 기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채 지원 방안도 올해로 끝이 난다. 2013년 7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은 등은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6월 말까지 총 5조5000억원을 한진·현대상선·한라·대성산업·동부제철 등 5개 대기업과 3037개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수혈했다.

◆기업들 체감온도는 한겨울

"선뜻 자금조달을 해주겠다는 금융회사가 없다. 잘못했다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도 이해가 간다." 한 중견 제조업체 자금조달 임원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이곳엔 증권사 직원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지금껏 돌아온 빚은 근근히 막았지만 앞으로 돌아올 만기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적부진에 신용 강등 우려까지 커진 기업들의 고민은 더 크다. '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금리 상승→투자 어려움→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자자 인식과 등급 간 괴리를 줄여 등급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은 기업은 자산유동화 등 대체조달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데 비우량 등급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좀비기업으로 낙인 찍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회사채 기피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도 자금운용을 보수적으로 할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재무구조가 좋았던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기자 kmh@metroseoul.co.kr

GM·대우조선·KAI 등 3년내 새주인 찾는다

산업은행, 지분 매각 착수
보유 5년 넘는 중기 91곳도 매각
일부 '헐값 매각 우려' 잇단 지적

산업은행이 한국GM, 한국항공우주(KAI), 대우조선해양 등 출자전환 5곳의 지분 매각에 착수한다.

특히 비금융자회사의 빠른 매각을 위해 양대 매각원칙으로 '신속한 매각'과 '시장가치 매각'을 제시했다. 헐값 매각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정책적 고려 때문에 지분을 보유했던 곳이나 구조조정 중인 곳도 있어 실제 매각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일 금융위원회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책목적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선 그간 출자전환했거나 투자했던 지분을 2016~2018년에 매각한다.

'정책목적 달성'의 기준은 출자전환 기업의 경우 정상화된 곳, 지분투자 벤처·중소기업은 투자기간이 5년을 넘은 곳으로 정해졌다.

계획은 산은이 보유한 비금융회사 지분을 중심으로 짜졌다.

산은이 지분 5% 이상 출자한 비금융사는 377개(출자전환 34개, 중소·벤처투자 등 343개)로 장부가로 9조3000억원에 달한다.

산은이 우선적으로 3년간 집중 매각할 지분은 출자전환 후 정상화 기업 5개, 중소·벤처 투자기업 86개 등 91개로 추려졌다.

시장의 관심은 출자전환기업 중 매각 대상 지분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3년 내 집중 매각할 대상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아진피앤피, 윈일티엔아이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의 지분율은 KAI 26.75%(약 2608만주), 대우조선 31.46%(6021만주), 한국지엠 17.02%(7070만주)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3년 내 매각 대상에 기업은행의 KT&G 지분 6.93%(951만주)와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대선조선 지분 각 70.71%, 67.27%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를 이루면 매각 대상에 오를 산은의 출자전환회사 지분도 적지 않다. 현대시멘트와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STX, 동부제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매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매각계획에 포함된 기업의 지분을 팔 때 관련 산은 임직원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가치 매각을 내세움에 따라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정 손실을 반영하고 나서 시장가치로 팔기로 했다. 벌써부터 헐값 매각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행이 1998년 10월 KT&G 주식을 취득한 금액은 총 1조2000억원으로 현재 시장가치보다 높다.

/김문호 기자



대구銀 '행복은퇴설계센터' 179개 점포서 운영 DGB대구은행은 1일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은퇴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위한 특화센터인 '행복은퇴설계센터'를 179개 영업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본점 영업부 PB상담실에서 '행복은퇴설계센터' 현판제막식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구은행

'함박웃음' 삼성, 계열사 6곳 "기대이상 실적"

전자·중공업·SDI 등 약진에
전체 시총 한달새 38조 늘어

삼성그룹의 계열사 4곳이 3·4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돈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냈다. 덕분에 삼성 계열사의 시가총액도 한달새 무려 38조원이 불어났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3개월 내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기업 중 10월까지 3·4분기 실적(연결 재무제표 잠정 기준)을 발표한 삼성 계열사는 11곳으로 6개사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평균 전망치)보다 10% 이상 많은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곳도 4곳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보다 12.45% 많은 3분기 영업이익을 냈으며 삼성중공업(298.29%)과 삼성SDI(160.05%), 삼성정밀화학(54.06%) 등도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까지 내놓은 삼성전자는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월 말 202조947억원으로 한달 전인 9월 말(167조374억원)보다 무려 35조원 가량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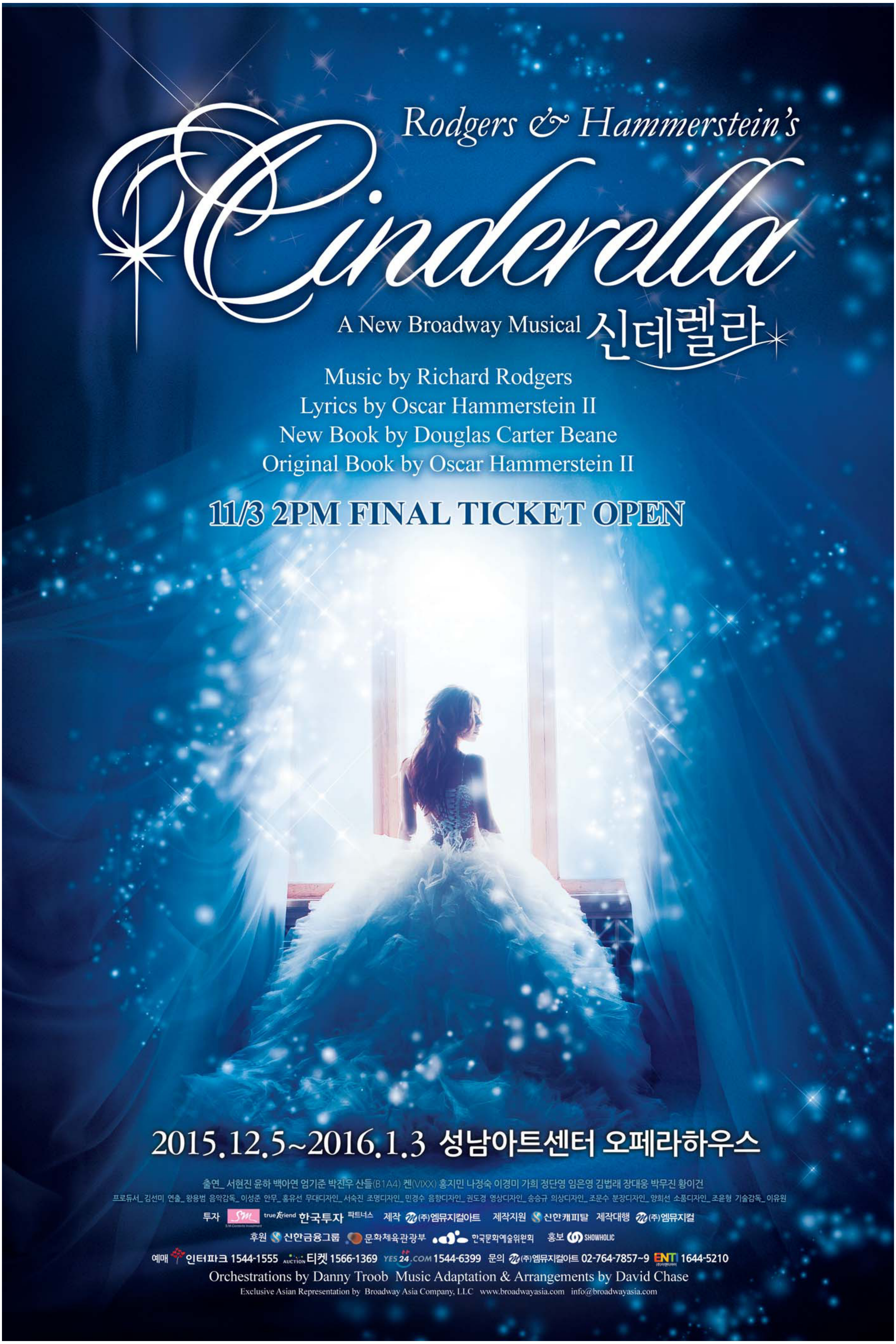
결국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16곳의 10월 말 시가총액은 324조1355억원으로, 9월 말(285조6997억원)보다 38조4358억원(13.45%) 증가했다. 연초와 비교해도 3.78%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삼성엔지니어링은 1조5000억원 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호텔신라의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보다 86.06% 적었고 삼성에스디에스(-24.01%)도 어닝 쇼크(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10%이상 하회)를 기록했다.

제일기획(-1.68%)과 삼성카드(-0.26%)의 3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11/3 2PM FINAL TICKET OPEN
2015.12.5~2016.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_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박진우 산들(B1A4) 켄(VIXX) 홍지민 나정숙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무진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투자 SM true friend 한국투자 파트너스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YES24.COM 1544-639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치솟는 전세값… 알짜 중소형 아파트 열풍

9월 매매 5만6434가구 중 전용 85㎡이하 84% 차지

투자대비 높은 수익 주목 연말까지 8만여가구 공급

전용면적 90㎡에 사는 오모씨(37·여)는 집을 정리하고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지금 사는 집은 옛날 집이어서 최근 나오는 전용 84㎡와 크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집을 줄여가는 만큼 여유자금도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용 84㎡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희소성은 더 높아 질 것이라는 판단한 오 씨는 신규 분양되는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전세난에 떠밀린 수요자들이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전세 고공행진으로 매매 수요가 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특히 더 하다. 매물이 귀할 정도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 아파트 매매 중 전국 5만 6434호 중 전용 85㎡ 이하는 4만7768호로 전체 거래량에서 84%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5882호 중 1만2985호(81%), 서울 9357호 중 7588호(81%), 인천 3980호 중 3293호(82%)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4652호 중 3660호(78%), 대구 2370호 중 1911호(80%)를 기록했다.

<10월 이후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 가구수	시기(월)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	66~84	834	10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59~109	2,352(336)	10
김포 한강신도시	이랜드 타운힐스	72~84	550	1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상현 꿈에그린	84~120	639	10
강원 동해시 동회동	동해 북삼 하우스디	59~84	258	11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지구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56	376	11
서울 은평구 통일로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59~84	1305(337)	11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59, 84	416	11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 단구동 한신휴플러스	59, 74, 84	724	11
경기 남양주 다신신도시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	74~84	640	11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자이파밀리에	51~84	1,067	11
부산 수영구 망미동	수영 SK VIEW	1245(858)	59~84	11

* 상위 내용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각 사

수요자가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데다 1~2인 가구 수의 증가, 중대형보다 투자대비 높은 수익률에 따른 임대 수익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힘입어 연말까지 전국에서 16만8376가구 중 8만5672가구가 85㎡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이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0블록에 공급하는 동탄자이파밀리는 지하 2층, 지상 15~20층 11개동 1067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중소형 평형으로 설계됐다. 유형별로 ▲51㎡A 236가구 ▲51㎡B 60가구 ▲59㎡A 213가구 ▲59㎡B 55가구 ▲59㎡C 55가구 ▲74㎡ 110가구 ▲84㎡A 263가구 ▲84㎡B 75가구다.

동탄신도시 내 최초로 전용 51㎡가 공급돼 소형평형 프리미엄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건설이 같은 달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에 공급하는 수영 SK VIEW 는 지하 4층~지상 35층 13개동 전용 59~84m² 1245채(임대63채) 규모다. 유형별로 ▲59㎡ 518가구 ▲73㎡ 70가구 ▲84㎡ 594가구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858가구다.

한화건설이 이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62번지에 공급하는 광교상현 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 84~120㎡, 639가구로 조성된다. 세대수 대비 약 95%가 전용면적 84㎡ 이하로 구성됐다. 유형별로▲84㎡A 520가구 ▲84㎡B 84가구 ▲89㎡ 8가구(저층특화) ▲92㎡ 16가구(저층특화) ▲120㎡ 11가구(저층특화 복층구조)다. 청약은 이번주에 진행하며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11월 첫째 주 분양캘린더 (청약 11월 2~8일)					
시기	시/도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분양
2일	경기	용인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블록	1,449	1,449
		용인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블록	710	710
3일	제주	제주시	제주삼화 1 - 5 사랑으로부영 임대민중국)	384	384
4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3차	927	596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1,034	470
		성북구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2,352	934
	경기	용인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2블록	446	446
		용인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6블록	1,784	1,784
		김포시	한강신도시이랜드타운힐스	550	550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국아델리움 & 중해마루힐	226	226
		광산구	우산동 한국아델리움 & 중해마루힐(오)	113	113
	대전	서구	관저 더샵	954	954
	울산	북구	호계동 한양수자인2차	520	120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데시앙 4블록	720	720
		전주시	에코시티 데시앙 5블록	662	662
		전주시	에코시티자이	640	640
		전주시	전주에코시티더샵	724	724
	경남	거제시	힐스테이트 거제	1,041	1,041
5일	경기	수원시	수원호매실 B - 8블록 공공분양주택	430	430
		고양시	고양삼송2차동일스위트	834	834
		김포시	김포 사우 아이파크	1,300	1,300
		안산시	안산 롯데캐슬 더퍼스트	469	75
		용인시	광교상현 꿈에그린	639	639
	강원	원주시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1,243	1,243
	전북	군산시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1,400	1,400
6일	세종	대평동	세종시 3-1생활권 중흥S-클래스 에듀퍼스트	1,015	1,015

* 상위 내용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리얼투데이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1400가구 外

11월 첫째 주(2~8일)에는 전국 27곳에서 2만2566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중 일반 분양분은 1만9459가구다. 10월 다섯째주(26~11월 1일) 공급된 2만3878가구와 비교했을 때 4414가구(18%)가 줄었다. 견본주택은 6곳에서 개관한다. 당첨자 발표는 36곳, 계약은 28곳에서 진행된다. 분양물량 중에선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대우건설의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를 주목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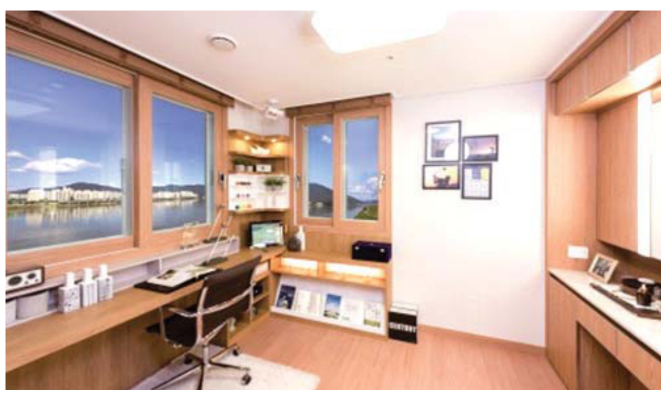
대우건설은 5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서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대우건설이 군산에서 20년 만에 공급하는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1개 동, 전용면적 59~99㎡ 14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44가구 ▲74㎡ 502가구 ▲84㎡ 605가구 ▲99㎡ 49가구 등이다. 전 가구의 97%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는 디오션시티에 최초로 분양되는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군산시 조촌동 2의 6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내 공간 내 마음대로 '선택형 아파트' 주목

선택형 알파룸 도입 가변형 벽체 사용 등 구조 자유변경 가능


전용 102㎡ B타입(확장형) 멀티공간을 서재로 활용한 모습. /GS건설

선택형 설계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가족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구성원의 개성을 살리려는 요구 때문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몇몇 단지는 입주자가 자녀들의 방 수납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채용해 주방이나 침실 구조, 자투리 공간을 손쉽게 변경하도록 설계했다.

GS건설이 4월 공급한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전용면적별로 발코니 확장시 침실과 안방의 멀티 공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침실에서도 기존 침실, 알파룸과 펜트리, 알파룸과 복도장식장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힘입어 평균 23.88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바 있다.

미사강변리버뷰자이 전용 98㎡A 타입에 당첨된 김모씨(49세, 남)는 "침실과 펜트리 등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며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당첨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당첨돼 기쁘다"고 말했다.

올해 막바지 분양시장에서도 선택형 설계 아파트가 선보일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최근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 선보인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전 가구 안방의 욕실을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드레스룸으로 무상 교체할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별로 자녀방 1개소 붙박이장을 키즈패키지로 적용할 수 있거나(유상옵션) 침실 2개소 통합, 터닝도어·거실 아트월 무상 선택 등이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24개 동, 2352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은 336가구로 ▲59㎡ 270가구 ▲84㎡ 65가구 ▲109㎡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 59㎡의 소형 타입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오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접수하며 12일 당첨자발표에 이어 17일~19일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656만원 수준이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준다. 입주는 2019년 2월로 예정돼 있으며 견본주택은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갤러리 3층에 마련돼 있다.

현대건설이 최근 경남 거제시 상동동 (상동4지구 A3블록) 일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거제에는 선택형 공간 설계가 적용됐다. 일부 세대의 경우 가족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타입에 따라 '침실공간 강화형'과 '수납공간 강화형', '가족공간 강화형' 등 공간 구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25층, 전체 11개동 규모로 전용 84~142㎡, 1041가구로 구성된다.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일이며, 계약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경청하는 롯데… "쓴소리도 듣겠다"

<신동빈 회장>

기업문화개선위, 첫 점검회의
집중개선 필요 '8대 과제' 선정
유연근무제 등 도입 추진

"쓴소리가 롯데그룹을 바꾼다."

롯데그룹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 롯데기업문화개선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기업문화개선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이인원 부회장, 이경묵 서울대 교수와 내·외부위원, 실무진 등 20여 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진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오후 12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오찬과 겸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신동빈 회장은 외부위원들의 쓴소리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그동안 기업문화개선위가 롯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외부위원들의 쓴소리를 경청한 후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 회장에게 ▲회장이 직접 대중과 호흡하라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라 ▲내부직원 협력사와 상생 ▲주주와 경영자를 구분하는 글로벌 기업 이미지 구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오너이기 이전에 전문경영인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한마디 한마디가 롯데를 바꾸는 소중한 아이디어이기에 적극 활용하고 도입하겠다"고 화답했다.

기업문화개선위는 지배구조개선 TFT(테스크포스팀)에 이은, 롯데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혁신 조직이다. 신 회장이 지난 8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롯데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한 후 후속조치로 지난 9월 15일 기업문화개선위를 출범했다. 이번 오찬회의는 변화시켜야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업문화개선위는 임직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수준 진단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진행하면서 롯데의 기업문화에 대한 평판을 분석했다. 언론보도 분석, 외부 전문가 의견 등도 함께 경청해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30일 롯데기업문화개선위원회를 열었다.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첫 점검회의다. 회의에 참석한 롯데그룹 내외부 관계자들이 롯데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회의에는 (왼쪽부터)롯데닷컴 김경호 상무, 롯데칠성 이영구 상무,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이인원 부회장(공동위원장), 이동훈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이복실 前 여성가족부 차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공동위원장),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오성엽 롯데케미칼 전무 등이 참석했다. /롯데그룹

<롯데 기업문화 개선위원회 선정 8대 과제>

목표	8대 과제	세부 개선 범위 (案)
임직원과의 신뢰	조직 자긍심	비전 공감대 형성, 임직원 성장 비전 설정 등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과정, 회의 및 보고문화, 일과 가정의 균형, 업무 환경 등
	경직된 조직문화	기업문화 적합성 제고, 기업문화 지향점 설정, 혁신 마인드 제고 등
동반자와의 신뢰	상생 협력	파트너사 선정 투명화, 계약준수, 파트너십 강화 등
사회와의 신뢰	기업 이미지	브랜드정체성 강화, 대외마케팅·홍보강화 등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성 확보, 고용규모 확대, 인재채용 다원화 등
	사회공헌	기업 및 임직원 차원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	(지배구조개선TFT 진행) 지주사 체제 전환, 순환출자 해소, 호텔롯데 IPO 등

롯데그룹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자긍심 ▲일하는 방식 ▲경직된 기업문화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할 '8대 과제'로 선정했다. 또 이 과제들을 20여개의 범주로 세분화시켜 개선방안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문화개선위는 일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추진 방안도 내놨다.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는, 전 계열사에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무 효율화와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획일적인 출퇴근 문화부터 바꿔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것.

기업문화 변화를 위한 임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각 계열사의 기업문화 개선 우수사례 공모전도 열기로 했다. 윤리경영과 관련한 별도의 홈페이지도 제작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주요 계열사의 파트너사에 채용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파트너사의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파트너사보 등의 효과를 위해 롯데 채용홈페이지(job.lotte.co.kr)에 파트너사의 채용공고도 함께 실을 예정이다.

향후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현황분석, 핵심원인 도출, 목표설정 등을 통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수립, 지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신동빈 회장은 "외부의 쓴소리를 기탄없이 경청해 적극 수용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임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 고객과 파트너사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며 격려했다.

롯데는 경영투명성 확보, 기업문화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 신 회장이 대국민 약속과 국감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신동빈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롯데제과 주식 매입에 이어 지난달 27일 호텔롯데가 3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기존 순환출자고리 중 약 84%를 해소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년 초 투자법인을 설립, 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신동빈 회장 및 임원진이 청년희망펀드에 100억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현대百 "판교점서 '트러플 페스티벌' 즐기세요"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내달 8일까지 정통 이탈리아 식자재 브랜드 '이탈리(EATALY)'에서 '트러플(송로버섯)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이탈리(EATALY)'는 이탈리아에서 갓 수확한 화이트트러플을 이용한 코스메뉴를 50명 한정으로 선보인다. 또한 트러플오일, 트러플 크림 등 트러플관련 상품구매 시 커피 이용권도 무료로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러블리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Lovely>

롯데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이달 2일부터 각 점포 내·외부를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로 단장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러블리 크리스마스'(Lovely Christmas)가 주제다. 본점 신관부터 에비뉴엘관까지 약 200m에 달하는 외관에는 노란색 LED조명을 설치해 은하수가 펼쳐지는 밤하늘을 연출한다. 본점 대형 쇼윈도에는 무빙모터를 설치해 곰, 여우, 펭귄 등의 동물들이 생동감을 선보인다.

영플라자 외벽에는 크리스마스의 메인 색인 빨간배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다양한 크기의 눈꽃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건물 정면에는 3000여 개의 조명을 사용해 선물을 들고 있는 북극곰이 은하수를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단장된 서울시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의 모습. /롯데백화점

백화점 내부도 다양한 소품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민다. 또 이달 13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연결되는 지하광장에는 '러블리 크리스마스 부스'를 마련한다. 부스 내부는 북극곰 캐릭터 상품 전시, 애니메이션 상영, 포토존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동서식품, 청주서 나눔의 선율 연주

음악 꿈나무에 악기지원·레슨 시민 위한 클래식 공연도 선사

동서식품이 커피향기처럼 진한 나눔의 향기를 전파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매년 '동서커피클래식'과 '맥심 사랑의 향기'행사를 통해 문화 나눔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문화 나눔의 장소로 청주를 선택했다. 청주시민과 시내 초등학교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동서식품은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 문의초등학교(이하 문의초교)에서 '제8회 맥심 사랑의 향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맥심 사랑의 향기'는 나눔이 필요한 곳에 문화자산을 후원해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 초등생에 악기 지원·재능기부

문의초교 학생들로 구성된 산소리·물소리 오케스트라단과 동서식품 관계자, 교직원과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연습실 오픈을 기념하는 현판 전달식과 첼로, 플룻, 클라리넷 등 악기를 기증하는 식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인 최초 빈 심포니 수석 연주자로 활약한 바 있는 플루티스트 '재스민 최'가 '일일 음악 선생님'으로 나서 직접 레슨과 협연을 하는 재능기부에 동참 했다.

이번에 수혜처로 지정된 문의초교는 2010년 '친환경 전원학교 시범학교'와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시범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아토피 치유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용 연습실, 악기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교로 한국메세나협회의 추천을 받아 맥심 사랑의 향기의 8번째 수혜 대상으로 선정됐다.

◆ 청주시민에 감동의 울림 선사

문의초교 지원에 앞서 동서식품은 청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커피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1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8회 동서커피클래식'도 개최했다. 이전까지 광역시 중심으로 열리던 동서커피클래식은 지난해 창원에 이어 올해 청주에서 열리며 중소도시까지 문화 나눔을 확대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 문의초등학교에서 '제8회 맥심 사랑의 향기' 행사를 열었다. 새로 오픈한 음악실 앞에서 문의초교 학생들과 함께 이장기 학교운영위원장, 동서식품 김창수 부사장, 문의초교 우영숙 교장, 동서식품 안경호 상무(뒷줄 왼쪽부터)가 자리를 함께 했다. /동서식품

동서커피클래식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문화 나눔 활동의 하나다. 무료 입장이지만 국내 정상급의 클래식 음악가들을 초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연은 류성규 단장 지휘하에 청주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합주와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플루티스트 재스민 최의 공연이 이어졌다. 박정원, 바리톤 서정학, 베이스 박광우 등 유명 성악가들도 이 공연에 참여했다.

동서식품 신연제 CSR 담당자는 "동서커피클래식은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 사회 주민과 클래식 음악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맥심 사랑의 향기는 문화자산 후원을 나누는 행사"라며 "고객과의 문화 나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파우치 양념장 '날개'

'집밥' 유행에 매출 증가 점유율 52% 부동의 1위

쿡방(요리 방송) 열풍에 힘입어 집에서 간편하게 가정식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파우치 양념장(원터치 양념장)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터치(One-Touch) 양념장'은 고기나 생선 등 원재료만 있으면 추가적인 양념이나 부재료 없이 간편하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간편한 파우치 형태 양념장을 말한다.

1일 시장조사기관인 링크아즈텍 조사에 따르면, '파우치 양념장' 시장 규모는 2013년 234억 원에서 지난해 255억 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262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뛰어 넘었다. 올해는 300억원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CJ제일제당의 파우치 양념장이 집밥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얻고 있다. /CJ제일제당

파우치 양념장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CJ제일제당도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 요리프로그램에서 '집밥' 열풍을 주도한 백종원씨가 오징어볶음 만드는 법을 소개하자 대형마트에 입점한 CJ제일제당 파우치 양념장 4종 중 '오징어볶음양념'이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파우치 양념장 시장에서 점유율 52%를 차지한 부동의 1위 기업이다. 오징어볶음양념, 뚝배기불고기양념, 고등어조림양념 등 대중적인 가정식 요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이미 출시했고, 앞으로도 '집밥' 관련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시장 1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주은 CJ제일제당 백설팀 팀장은 "찌개와 밑반찬에 국한되어 있던 '집밥'의 범위가 쿡방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보다 다양한 요리로 확대되고 있다"며 "요리에 전문 지식이 없어도 집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원터치 양념장을 선보여 '집밥'을 유행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아이와 손 그림자로 추억 쌓고 선물 받으세요

킨더초콜릿 '손 그림자 캠페인'

킨더초콜릿이 오는 8일까지 '킨더초콜릿과 함께 하는 손 그림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킨더초콜릿의 '손그림자 캠페인'은 엄마와 아이가 교감할 수 있는 손그림자 놀이로 풀어낸 새로운 TV광고를 시작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손 그림자 영상 공유와 함께하기 이벤트'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직접 관람하는 '그림자 동화 공연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손 그림자 온라인 이벤트는 오는 8일까지 킨더초콜릿 공식 홈페이지(https://www.kinderchocolate.co.kr/)에서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두 가지 버전의 킨더초콜릿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킨더초콜릿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킨더초콜릿과 함께하는 손 그림자 놀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사진 업로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가족여행 상품권, 그림자 놀이세트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G마켓, 빼빼로·초콜릿 최대 60% 할인

G마켓이 오는 8일까지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빼빼로, 초콜릿 등을 최대 60% 할인해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수능을 앞두고 찹쌀떡도 할인 판매한다.

먼저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DIY 세트 등 종류별 빼빼로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대표상품인 '마카롱 빼빼로 만들기 3단세트'는 23% 할인된 3만2900원에 판매한다. 다양한 초콜릿으로 구성된 세트상품 '러브러브 빼빼로데이'는 30% 할인된 1만7900원에, '롯데제과 빼빼로데이



선물세트'는 22% 할인된 2만9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1000명에게 과자·간식 상품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5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유현희 기자

새로 나왔어요

키엘 '수퍼 스마트 아이 세럼' 164년 노하우 '점보'에 듬뿍



키엘이 '수퍼 스마트 아이 세럼'의 점보 사이즈(사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수퍼 스마트 아이 세럼'은 164년 동안 축적된 키엘의 전문적인 스킨케어 지식과 내추럴 성분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출시된 이후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다.

이 제품은 연약한 눈가 주변 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안티에이징 세럼이다. 신제품 대용량 사이즈의 가격은 8만 9000원 대(30㎖)로, 기존 제품(15㎖) 대비 2배 용량이 늘어났지만 가격은 30% 저렴하다. /유현희 기자

크리스피크림도넛 '수능 세트' 만점 기원 100세트 한정판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수능 만점 도넛 세트'를 오는 12일 까지 한정 판매한다.

수능 만점 도넛 세트는 진한 초코크림 필링을 가득채운 수능도넛 1개와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2개로 만점을 상징하는 숫자 '100'을 표현했다. 가격은 4000원. 점포별 100개 세트 한정판매로 단체주문과 예약이 가능하다. 제품을 담는 박스에 응원 메세지를 더한 것도 특징이다. /유현희 기자

현대百, 여직원 가이드북 발간 업무 애로점 극복 노하우 담아

현대백화점은 국내 기업 최초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 겪게 될 애로사항과 극복 노하우를 담은 '여성직원 생애주기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 단체가 아닌 일반 사기업이 여성직원의 업무 환경과 생애(生涯) 주기를 분석해 가이드북 형식으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북은 회사 입사 후 여성 직원만이 겪게 되는 '입사·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주요 사안을 세분화해 19개의 행동요령을 담았다. 활용 편의성을 위해 e북 형태로 발간됐으며 향후 모바일 형태로도 개발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남성직원들을 위한 지침서나 직급별 가이드북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프랜차이즈, 이색 레시피로 맛집 넘본다

입맛 까다로워진 고객 겨냥
대중화 넘어 특화요리 개발




화덕 구이로 담백함을 살린 더화덕의 '오리지날 치킨'(왼쪽)과 제주도야지판의 '제주도야지 한판'.

프랜차이즈들이 조리가 간편하고 대중적인 메뉴를 벗어나 특화된 메뉴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더화덕' '청담이상'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메뉴를 속속 출시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화덕요리 프랜차이즈 더화덕은 '화덕'이라는 독특한 조리 기구를 이용해 일반 치킨과는 다른 고품질의 메뉴를 내놨다.

대표메뉴는 '오리지날치킨'. 340도로 달아오른 높은 온도의 화덕에서 단시간 안에 구워내기 때문에 육질이 담백하고 고소하다. 더화덕 본사에서 운영하는 계육공장에서 최고급 닭을 선별해 사용함으로써 메뉴의 신선도와 함께 품질도 높였다. 더화덕은 치킨과 함께 피자, 족발 등 화덕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최근에는 메뉴 다양성과 차별화를 위해 통오징어를 바삭하게 튀겨낸 '불꽃오징어'를 신메뉴로 내놓았다.

공장에서 육수를 제공받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매장에서 직접 육수를 끓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냄비철판요리 전문점 '남와집'은 매일 아침 매장에서 육수를 직접 끓인다. 육수의 맛이 메뉴의 맛을 좌우한다는 본사의 신념에 따라서다. 육수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에 비해 운영의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메뉴의 품질이 월등히 높아져 고객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개인 식당으로 인식할 정도라고. 남와집은 직접 끓여낸 육수를 활용해 부대찌개, 김치찌개 등 식사와 안주가 함께 가능한 대중적인 한식 메뉴를 선보인다. 메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육볶음도 직화구이 방식으로 만들어 특유의 불맛을 살렸다.

신선한 제주산 돼지고기를 강조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등장했다. 감자탕으로 알려진 이바돔이 운영하는 제주도야지판은 '내 집 앞에서 즐기는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을 표방한다. 얼리지 않은 신선한 제주산 돼지고기를 각 가맹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제주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돈육가공 전문업체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오겹살, 목살, 생갈비, 껍데기로 구성된 '제주도야지 한판'을 기본으로 한 끼 식사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통돼지 김치찌개', '통돼지 고추장찌개', '제주도야지 두루치기' 등의 메뉴를 갖췄다.

이자카야 프랜차이즈도 고급 일식 전문점에서 즐길 수 있는 정통 일식 메뉴를 선보이며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자카야 청담이상'은 품질 좋은 사시미 메뉴와 '도미 고노와다', '키조개 와사비 그라탕' 등 이색적인 일식 메뉴를 내놓는다. 직장인들을 겨냥해 '야끼우동 벤또', '규동', '미소라멘' 등 간단한 식사 메뉴도 갖췄다. 이와 더불어 청담이상은 메뉴 차별화를 위해 분기마다 메뉴 추천 발표회인 '오스스메'를 개최한다. 전국 가맹점주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본사에서 개발한 메뉴를 맛보고 평가한 후 원하는 메뉴를 신메뉴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화에 한 업계 관계자는 "고품질의 메뉴를 선보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메뉴 맛을 본 소비자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도 메뉴의 맛뿐만 아니라 품질을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안전보건공단, 獨 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전문가 교류·연구활동 확대



지난 29일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이 독일재해보험조합 라인하르트 프라이허 폰 레오프레흐팅 회장과 협정을 맺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9일 이영순 이사장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독일 정부는 2년마다 동반국가를 선정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간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술협력 연장 협정은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영순 이사장은 이날 독일재해보험조합의 라인하르트 프라이허 폰 레오프레흐팅 회장과 협정을 맺고 양국 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활동, 교육훈련 지원, 기술자료와 지식 공유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재해보험조합은 안전보건공단이 의장기관으로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의 '글로벌 예방문화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는 150개국 3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분야 국제 비영리 기구다.

독일재해보험조합은 그동안 산업재해예방·보상, 재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안전보건공단과 2011년 기술협력협정을 맺고 국제행사 지원, 공동 국제 세미나 등을 추진해왔다.

이영순 이사장은 협정체결을 통해 "독일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 전문가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변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바다가 보이는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쓴 시집 '빨간 등대 지휘자'출판 기념회와 '2015 대변꼬마시인학교 문학콘서트의 밤'을 열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학교 울타리에 전시된 시화전을 감상하고 있다.

꼬마시인 글솜씨 보러 오세요

대변초교 문학콘서트
이달 30일까지 시화전

꼬마 시인들이 시를 낭송하고, 연주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0일 부산 기장군 대변초등학교 운동장.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15 대변 꼬마시인학교 문학콘서트의 밤'이 열렸다. 이번 문학콘서트에서는 전교생이 고사리손을 모아 만들어 낸 시집 '빨간 등대 지휘자'가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였다. 대변초등학교가 전교생 시집을 낸 것은 2013년 이후 세 번째다.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쓴 '갈매기 합창단' 시 구절에서 따온 '빨간 등대 지휘자'에는 전교생 68명이 한 글자씩 정성스레 써내려간 시 136편이 담겼다. 지난 23일부터 학교 운동장 울타리를 따라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시화전은 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학교측 관계자는 "아름다운 가을 밤에 개최되는 '꼬마시인학교 문학콘서트'는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감수성을 일깨우고, 학예와 동시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과 문화예술 정서를 한층 높이는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女心 저격 뷰티 케어 '설레임 취향저격'

스탠포드호텔
패키지 4종 내달 31일까지
코스메틱 팩 2박스 증정



서울 상암동 DMC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이 '설레임 취향저격' 패키지를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선보인다.

총 4종으로 구성된 설레임 취향저격 패키지는 숙박과 식사 또는 차가 제공되는 한편 여성 고객을 위해 코스메틱 팩도 증정한다. PKG-A 패키지는 더블 또는 트윈 룸주니어 스위트룸 1박 2인에게 전통차가 제공되며 설레임 코스메틱 팩 2박스를 받을 수 있다. PKG-B패키지는 주니어스위트룸 1박과 함께 PKG-A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PKG-C는 더블 또는 트윈 룸에 조식 뷔페 2인이, PKG-D는 객실 1박과 주니어스위트룸, 조식 뷔페 2인이 제공된다. C, D 패키지에도 설레임 코스메틱 팩 2박스를 증정한다.

패키지 가격은 각각 16만원~22만원선(부가세 별도)이며 12월 24일, 31일은 4만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스탠포드호텔관계자는 "스탠포드호텔과 강남 설레임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만든 설레임 코스메틱팩을 구성으로 차별화된 뷰티 콘텐츠를 만들었다. 설레임 취향저격 패키지는 올 겨울 도심 속 고객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취향저격의 패키지" 라고 전했다.

문의 : 02-6016-0001

/유현희 기자 yhh1209@

노량진역, 9~1호선 지하 환승통로 개통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국철 1호선으로 갈아타는 지하통로를 지난달 31일 개통했다고 1일 밝혔다.

노량진역은 지하철 9호선과 국철 1호선 환승구간이다. 기존에는 지하철 9호선에서 국철 1호선으로 환승하려면 개찰구를 통과해 지상 출구로 나갔다가 다시 1호선 개찰구를 통해 환승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승통로 개설로 지하철 9호선과 국철 1호선 간 환승을 위한 거리는 300m에서 150m로 단축됐다. 이동 시간도 5분에서 3분으로 줄었다. 일회용 교통카드 이용객도 별도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가능하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철을 갈아타는 시민들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영화 '특종: 량첸살인기' 이하나

"민폐녀? 외로움에 공감했죠"

이하나(33)가 물었다. "취재하면서 언제 즐거우세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이요." 빈말은 아니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이하나와의 대화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그 뜻하지 않은 흐름이 이하나라는 사람에 대해 찬찬히 뜯어볼 기회가 됐다.



이하나를 만난 건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특종: 량첸살인기'(감독 노덕)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영화는 연쇄살인사건의 특종인 줄 알았던 제보가 실수로 밝혀지면서 위기에 처하는 방송국 기자 무혁(조정석)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하나는 무혁의 아내로 임신 중인 몸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미술관 큐레이터 수진을 연기했다.

2012년 '알투비: 리턴투베이스' 이후 무려 3년 만에 출연한 영화다. 스크린에서 이하나를 기다려온 팬이라면 무척 긴 기다림이다. 그러나 '특종: 량첸살인기'는 기다림을 충족시키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 속 수진의 등장 분량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캐릭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 그러나 이하나는 "시나리오가 좋아서



감독님만 믿고 따라갔다"며 웃었다.

"시나리오에서도 수진의 비중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를 읽을 때 무혁 위주로 봤거든요. 이렇게 주인공이 눈에 확 들어온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했죠. 나이가 드니까 착해지나 봐요. 그전에는 오로지 내 역할만 보였는데 말이죠(웃음)."

그 말처럼 이하나는 영화 촬영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작은 역할이지만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즐거웠다. 처음으로 임산부 역할에 도전한 것도 나름의 경험이 됐다. '진짜로 아이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했다.

영화 개봉 이후 일부 관객은 수진을 '민폐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하나는 수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외로움'에 공감해서였다.

"수진은 외로워서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를 위해 누군가는 맡았어야 하는 역할이었고요. 아무래도 여자 감독님이라 의지도 많이 했고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관객들이 생각보다 수진에게 호응을 잘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영화와 드라마에서 잠시 사라진 동안 이하나는 마냥 쉬지 않았다. 꾸준히 음악 작업을 하며 앨범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홍대 앞 카페 벨로주에서 공연을 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연기와 음악은 이하나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다.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에요. 도박하고 모험하는 걸 싫어하고 불안해하죠. 영화와 드라마는 공동 작업이라

3년 만에 스크린 컴백한 작품
작은 비중에도 만족했던 촬영
음악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
제 매력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는 점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점이 즐겁지요. 반면에 음악은 오롯이 제가 하는 것이라 제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종: 량첸살인기'에서 느낀 아쉬움은 최근 출연한 KBS2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짝퉁패밀리'로 달랠 수 있다. 이하나는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김혜자 선생님과 작업하며 얻었던 에너지, 그리고 '특종: 량첸살인기'의 현장에서 생겨난 연기의 재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단막극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제가 잘 할 수 있는 작품을 다시 만나서 저만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FT아일랜드, 日 가을투어 '부도칸'서 화려한 마무리



밴드 FT아일랜드가 일본에서 진행한 한 달 동안의 가을투어의 대미를 장식했다.

FT아일랜드는 지난 9월 28일 나고야를 시작으로 도쿄·니가타·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센다이·히로시마 등을 거치며 일본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도쿄 부도칸 공연을 끝으로 투어를 종료했다. 이번 투어는 한 달 동안 총 13회 공연을 개최해 평균 2.3일당 1회씩 라이브 공연을 이어갔다.

FT아일랜드는 올해 국내 정규 5집 '아이윌'에 이어 일본 정규 5집 '5…GO', 일본 싱글 '퍼피' 등을 연달아 발매하고 아레나투어와 아시아투어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장병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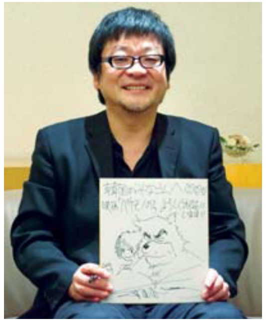
호소다 마모루 감독 '괴물의 아이'로 6년만의 내한

시사회·인터뷰 등 공식일정 소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워즈' '늑대아이'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호소다 마모루 감독(사진)이 신작 '괴물의 아이'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내한은 '썸머 워즈'가 개봉했던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오는 11일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인터뷰, 특별시사 참석 등의 공식 일정을 2박 3일 동안 소화할 예정이다.

내한에 맞춰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전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도 개최된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과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서면에서 순차적



으로 진행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워즈' '늑대아이' '괴물의 아이' 등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연출한 4편의 작품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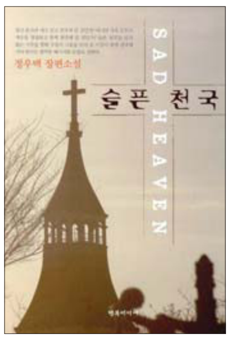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괴물의 아이'는 괴물의 손에 길러진 인간 소년과 인간을 제자로 삼은 괴물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오는 25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E channel
DRAMA cube
E채널 X 드라마큐브 동시방송
당신의 심장은 지금 우리들 만큼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로드트립 공감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11월 8일 일요일 밤 11시 첫방송
김동욱 | 이청아 | 최여진 | 윤종훈 | 최민 길해연 장호일 정이랑 이희진 미람 조병규 | 특별출연 | 권해효 홍석천 김강현 이동훈 | 극본 | 박상희 | 연출 | 최도훈
t.cast

새로 나온 책

슬픈 천국

행복미디어/정우택 지음



성경에 기초해 가족 구원의 절박성을 그린 순수 장편 신앙소설 '슬픈 천국'이 출간됐다.

소설은 신앙심 깊은 아내 혜민과 신앙 생활을 등진 남편 김세상의 삶과 사후 모습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다른지 실감나게 묘사했다.

소설은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믿음은 각자의 것이라는 점, 둘째 믿음에는 때가 있다는 것, 셋째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다.

'슬픈 천국'은 예수의 제자들이 구원의 그물을 던졌듯 오늘의 크리스천들은 가정의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 구원의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연애소설이 필요한 시간

부키/요조 외 지음



영화감독·소설가·시인·만화가·싱어송라이터 등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스무 명이 '연애소설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 글을 써내려갔다. 필자 개개인의 연애사, 그들이 읽고 위안을 받은 소설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연애 부재중'인 이들의 헛헛함과 건조해진 마음을 달래줄 책이다.

허그HUG

리틀빅/지미 리아오 지음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달과 소년' '지하철'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삽화가 지미 리아오의 신작이다. 빨간 사자 이야기를 비롯해 수많은 동물과 어린 아이들이 나누는 포옹을 주제로 한 그림 에세이다.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세상 속에서 '허그HUG'는 독자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것이다.

노리스 씨 기차를 갈아타다·베를린이여 안녕

창비/크리스토퍼 이셔우드 지음



영미문학 작가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의 대표작이다. '노리스 씨 기차를 갈아타다'와 '베를린이여 안녕'은 각각 독립적인 작품이지만 동시에 서로 맞물리는 시·공간과 등장인물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다. 이셔우드는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1930년대 베를린 사회를 외지인의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판미동/신순규 지음



월가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 씨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신순규 씨는 9세에 시력을 잃었지만 미국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을 졸업,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로 20년간 활동해오고 있다. 그가 말하는 소중한 삶의 가치가 독자에게 큰 울림을 안길 것이다.

재미있다! 한국사

창비/구완회 지음



선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한 초등 한국사 시리즈다. 4·5·6권출간으로 완간됐다. 새롭게 바뀐 초등학교 교과서에 맞춰 한국사 핵심 내용을 충실히 담아냈다. 다양한 현장 사진을 수록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갈매기의 꿈

현문미디어/리처드 바크 지음



1970년 발표 이후 전 세계 40여 개의 외국어로 번역돼 40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리처드 바크의 우화소설 '갈매기의 꿈'이 45년 만에 미공개 원고를 추가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자유롭게 비행하는 갈매기 조나단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그렸다.

TV 하이라이트



정체모를 남자들의 습격

◆ MBC '화려한 유혹' 오후 10시

석현(정진영)은 서재에서 은수(최강희)를 발견하고 은수와 청미(윤해영)를 혼동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형우(주상욱)는 은수로부터 석현의 집에서 메이드를 하는 이유를 듣게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체 모를 남자들에게서 습격을 받게 된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 KBS2 '발칙하게 고고'

오후 10시

하준(지수)이 연두(정은지)를 향한 마음을 키워가는 사이, 괜히 연두에게 화를 낸 열(이원근)은 고백을 한다. 캠프파이어 시간에 수아(채수빈)는 진실게임 질문을 받는다.



◆ tvN '풍선껌'

오후 11시

리환(이동욱)과 행아(정려원)는 시크릿 가든에서 재회해 화해한다. 이슬(박희본)은 리환으로부터 행아를 '친한 친구'라고 소개받지만 행아에게 각별한 리환의 모습이 자꾸 신경쓰인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30분

전 농구선수 서장훈을 위한 요리대결을 펼친다. 샘킴과 이찬오는 건강한 요리대결에 나선다. 이연복은 김풍을 상대로 '냉장고를 부탁해' 사상 최초 7연승 대기록에 도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일 (월)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11:55 안녕 우리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발칙하게 고고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내일도 승리 (1회)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7:30 모닝와이드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최고의 사랑 스페셜 10:00 히든싱어 4 (재)	06:4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30 응답하라 1994 (재) 10: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06:40 간첩 08:50 CSI 시즌5 (재)	04:10 비스티 보이즈 06:20 체포왕 08:20 주말 N 영화 09:20 패션왕
12:00 KBS 뉴스 12 13:00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15:00 한국인의 밥상 (재)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3:10 화려한 유혹 (재) 14:30 꾸러기 식사교실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민영방송 기획 물은 생명이다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출동! 포돌이가 간다	12:05 송곳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30 집밥 백선생 (재) 14:50 문제적 남자 (재) 16:20 코미디 빅리그 (재) 17: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2:40 나니아 연대기 2 캐스피언 왕자 15:20 언노운 17:20 특수본	11: 4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13:40 클라우드 아틀라스 16:50 콘스탄틴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우리 집 꿀단지 21:00 KBS 뉴스 9 22:00 특집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1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24:35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9	18: 20 201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MBC 다큐스페셜 24:10 MBC 뉴스 24 24: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4:45 스포츠 특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최고의 사랑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2:50 비정상회담 24:2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	19:40 리틀빅 히어로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 (재) 23:00 풍선껌 24:20 명단공개 (재)	19:30 나우 유 씨 미:마술사기단 21:30 기술자들 24:00 인셉션	19:10 더 록 22:00 8월의 크리스마스 24:10 히트맨

뚝심의 두산 야구… 기업문화와 닮았다

14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

박용만 두산 회장 "따뜻한 팀컬러가 자랑 변함없는 응원에 감사"



두산 베어스가 지난달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13-2로 승리하고 14년 만에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뒤 열린 2015프로야구 시상식에서 두산의 김태형 감독과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곰의 '뚝심'이 우승을 일궈냈다. 두산 베어스가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14년 동안 쌓인 한을 마침내 풀었다.

지난달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7전4승제) 5차전에서 두산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13-2 완승을 거뒀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한 것.

대구 원정 1차전에서 어이없는 실책으로 역전패 당했던 두산은 이후 4연승을 내달리며 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정규시즌 3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두산은 넥센 히어로즈와 준플레이오프(3승1패), NC 다이노스와 플레이오프(3승2패)를 거쳐 한국시리즈까지 총 1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 우승을 달성했다.

두산의 승리를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바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다. 재계에서 소문난 야구광인 박 회장은 이날 경기장을 직접 찾아 14년 만에 이룬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지난 2001년 OB베어스의 우승 당시에도 박 회장은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박 회장은 2003년 고려산업개발, 2005년 대우종합기계, 2006년 미국 건설장비업체 밥캣 등 10여건의 인수합병(M&A)에 성공하면서 두산을 중공업그룹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지금도 두산그룹은 끊임 없는 선제적 구조조정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외 매출비중을 64%(2013년 기준)까지 끌어 올리며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번 한국시리즈 우승에서도 두산의 이 같은 '뚝심'을 엿볼 수 있다. 넥센과 NC에 이어 삼성까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결국에는 우승을 거머쥐는데 성공한 것이다.

박용만 회장은 한국시리즈 우승 직후 열린 축승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 14년 동안 우승을 못 안겨 드렸는데도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우승 소감과 팬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회장은 두산건설 입사 첫해인 1982년부터 전신 OB 베어스를 포함해 총 4차례 우승을 모두 지켜봤다. 그가 꼽은 두산 베어스의 장점은 '한결같은 팀'이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한두 명의 스타가 아니라 선수들 골고루 다 열심히 하는 팀이고, 팀 컬러가 따뜻하다"고 말했다. 이어 "팀 컬러가 변하지 않고 두산만의 야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구단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며 한결 같은 뚝심을 드러냈다.

구단 프런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 나타냈다. 박 회장은 "내가 계열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다 보고받는데 딱 하나 안 받는 회사가 두산 베어스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다. 매년 목표가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똑같다. 안 봐도 안다"며 웃었다.

또한 박 회장은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만 팬의 한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것이지 야구단 운영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아무리 회장이라도 전문분야가 아닌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팀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며 자신의 경영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캔자스시티, 월드시리즈 우승 보인다

5차전 짜릿한 역전승 시리즈 전적 3승1패

캔자스티시로열스가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됐다.

캔자스시티는 1일 (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7전4승제) 4차전 방문 경기에서 뉴욕 메츠에 5-3으로 승리했다.

2-3으로 뒤진 8회초 캔자스시티는 1사 후 벤 조브리스트와 로렌조 케인이 연속 볼넷을 얻어 1, 2루의 기회를 얻었다. 이에 메츠는 마무리 투수 제우리스 파밀리아를 마운드에 올렸다.

파밀리아는 에릭 호스머를 2루수 땅볼로 유도했다. 그러나 메츠 2루수 대니얼 머피가 느린 타구를 잡기 위해 전진하다 공을 글러브 밑으로 빠뜨리는 실책을 저질렀다. 공이 천천히 굴러가는 사이 2루 주자 조브리스트가 3루를 돌아 홈을 밟았다.

이어 캔자스시티는 마이크 무스타커스의 우전 적시타로 4-3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진 1사 1, 3루에서 살바도르 페레스가 우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뽑아내 5-3으로 승리를 확정했다.

이로써 캔자스시티의 시리즈 전적은 3승1패가 됐다. 남은 경기 중 1승만 올리면 캔자스시티는 30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5차전은 2일 시티 필드에서 열린다. /장병호 기자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4차전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뉴욕 메츠의 경기. 5-3으로 승리한 캔자스시티 선수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이날 승리로 캔자스시티는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됐다. /AP 연합뉴스

심석희·최민정·곽윤기 '金金金'



심석희(오른쪽)가 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여자 1500m 결승에 나섰다. 이날 경기에서 심석희는 2분15초260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AP 연합뉴스

쇼트트랙 월드컵 1차 우승 행진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메달이 쏟아졌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세화여고)와 최민정(서현고), 남자 쇼트트랙의 곽윤기(고양시청)가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심석희는 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5초260을 기록해 부탱 킴(캐나다·2분25초562)을 0.302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최민정은 여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전에서 1분32초394의 기록으로 마리안 생젤라(캐나다·1분32초976)를 0.582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곽윤기는 남자부 15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캐나다의 '강호' 샤를 아믈랭과 러시아의 세멘 엘리스트라토프가 뒤엉켜 넘어진 틈을 타 앞으로 치고 나서 2분16초78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장병호 기자

김세영, LPGA 시즌 3승

김효주 제치고 신인왕 선두

김세영(22·미래에셋·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기록했다.

김세영은 1일 중국 하이난섬 지안 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코스(파72·6778야드)에서 열린 블루베이 LPGA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18번홀(파5)의 짜릿한 버디 퍼트로 정상에 올랐다.

합계 2언더파 286타를 기록해 캔디 쿵(대만),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킴 카우프먼(미국)을 1타차로 따돌리고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김세영은 신인왕 포인트 150점을 보태 1422점이 됐다. 김효주(20·롯데)와의 격차는 247점이다. 김효주는 이 대회에서 기권해 포인트를 쌓지 못해 신인왕 포인트 2위(1175점)에 머물렀다. 남은 대회에서 추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세영은 13번홀(파4)에서 2번째 샷을 홀 2m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냈다. 2타차 단독 선두였던 루이스가 이 홀에서 3퍼트를 하는 바람에 보기를 적어내 김세영과 동타를 허용했다.

이어 김세영은 14번홀(파5)에서 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어 1타차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김세영이 17번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내면서 공동 선두가 3명이 됐다.

승부는 결국 18번홀 그린 위에서 갈렸다. 김세영과 캔디 쿵, 루이스 모두 3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렸다. 하지만 버디 퍼트를 성공한 것은 김세영 뿐이이었다. 두 선수의 버디 퍼트가 모두 빗나간 뒤 마지막으로 퍼트를 한 김세영은 2m 거리의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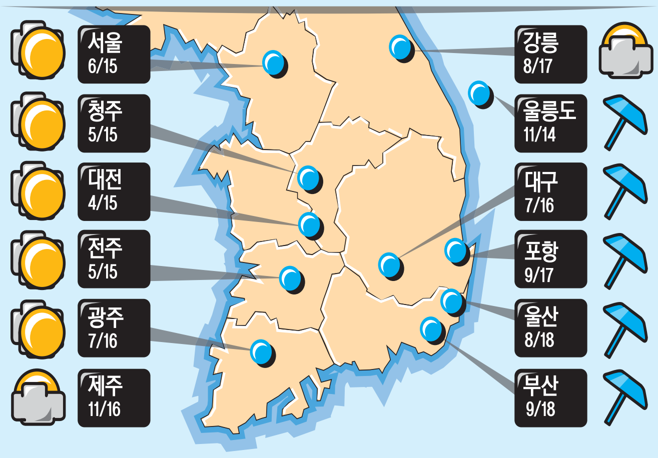
/장병호 기자



날씨

11/2 월 일출시각 06:57 일몰시각 17:3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1	
		2		3		6		
				8		9	4	
9		1			2			
	4	5	9		8	3	6	
			3			2		1
	8	3		7				
		9		5		1		
	7					5		

						3	7	
9	7		8		2	5		
5	2			3				
			6			9		
	8		5	7	4		3	
		2			9			
				9			5	6
		5	3		8		4	9
	9	1						

스도쿠 정답

4	5	8	2	9	6	7	1	3
7	9	2	1	3	4	6	8	5
3	1	6	5	8	7	9	4	2
9	3	1	7	6	2	8	5	4
2	4	5	9	1	8	3	6	7
8	6	7	3	4	5	2	9	1
5	8	3	6	7	1	4	2	9
6	2	9	4	5	3	1	7	8
1	7	4	8	2	9	5	3	6

8	1	6	9	4	5	3	7	2
9	7	3	8	6	2	5	1	4
5	2	4	7	3	1	6	9	8
1	4	7	6	2	3	9	8	5
6	8	9	5	7	4	2	3	1
3	5	2	1	8	9	4	6	7
4	3	8	2	9	7	1	5	6
2	6	5	3	1	8	7	4	9
7	9	1	4	5	6	8	2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t must be due to the carelessness of the driver!

Lisa : Look at that! Oh my goodness! There was a car accident.

Young : Those cars are totaled. How terrible.

Lisa : Do you think the driver dozed off at the wheel?

Young : It must be due to the carelessness of the driver.

부주의 운전을 한 게 틀림 없어!

리사 : 저기 좀 봐. 오, 이런! 차 사고야.

영 : 차들이 거의 박살이 났네. 너무 끔찍하군.

리사 :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영 : 부주의 운전을 한 게 틀림 없어.

Quiz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dialogue?

(A) There was a minor collision.
(B) The woman is a driver.
(C) The man drives very fast.
(D) There was a car accident

문법Point

It must be+명사(형용사)
그것은 ~임에 틀림없다.

이번 패턴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 반드시 어떠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Must 라는 조동사 다음에 일반동사를 쓰는 형태가 아니고 must be까지 함께 묶어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므로 must be 뒤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명사형태를 씁니다.

퀴즈해설

Q. 들려준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접촉사고가 있다.
(B) 여자는 운전수다.
(C) 남자는 매우 빠르게 운전한다.
(D) 교통사고가 있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민 계획 중인데 진로가 고민입니다
건축직종 적절… 꾸준히 노력하시길

나는 럭키걸 여자 85년 10월 7일 13시 40분
남자 89년 7월 13일 13시

Q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고민이 많은 30대 여성입니다. 남자 친구와 저는 내년에 외국에 나가 살 생각입니다. 남자친구는 외국에서 기술학교를 다니고 난 뒤 이민을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구요, 저는 디자인 관련 대학교를 졸업하여 저도 같이 나가서 해외에서 살 수 있게 함께 준비할 생각인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동차정비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건축 쪽이나 배 용접 쪽으로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미래를 위해 직업을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게 계획을 짜야하는지 궁합과 결혼은 언제쯤 해야 좋을지요.

A 럭키걸님의 성정은 '들판에 토끼'같은 형상으로 순수하고 남에게 이용당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외국 나가는 일은 정말 심사숙고해야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기술력이 있는 직업입니다. 즉 자상하고 꼼꼼한 면모로 세밀한 성격을 요하는 기술이나 기예에 뛰어나니 뭐든지 꾸준히 하면 됩니다.

생일지(生日支)에 편관(偏官:남자)은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하여 상대방이 애를 태우기도 하지만 음팔통(陰八通)으로 다소곳하고 정숙하며 요조숙녀타입이므로 남편에게 잘 합니다.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의향에 따르고자하는 마음으로 만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결단력이 부족하여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으니 배우고자하는 일은 지속하십시오. 운이 긍정적인 양(陽)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남자를 나타내는 정관(正官)이 상승기운에 있어 내조를 잘 하므로 남편의 승진과 성공을 도모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궁합은 천간과 지지의 합(合)을 이루고 있으며 천을귀인(天乙貴人: 뜻밖에 남의 도움을 받음)을 갖고 있으며 남자사주에서 귀하를 나타내는 정재(正財:내가 극하는 오행)가 포태법상 왕지(旺地)에 있으니 건강하고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남편 덕으로 귀부인 대접을 받는 격이 됩니다.

해외이민 운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으니 일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헤어지지 않도록 화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남자의 직업선택에 대해서는 건축 직종은 잘 맞는다고 봅니다. 사업보다는 회사 생활로 정기적인 봉급을 받는 것이 정도(正道)를 가는 길입니다. 2019년 까지는 술미형(戌未刑)에 충살(沖殺)를 당하고 있으니 계획의 포기나 교통사고를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2일 (음 9월 2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할 것입니다. **60년생** 시간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72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84년생** 여행도중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소 — **49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61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집니다. **73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85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니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호랑이 — **50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하세요. **62년생** 남과 다투지 마세요. **74년생** 과한 운동을 하면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86년생** 모든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으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세요.

토끼 — **51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63년생**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75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다. **87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 — **52년생** 독선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64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합니다. **76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88년생**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뱀 — **53년생**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습니다. **65년생** 사업을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되니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말 — **54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66년생** 지금 계약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78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90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 — **55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7년생** 앞질러가려 하지말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79년생** 애정운이 불길합니다. **91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원숭이 — **56년생** 천천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도록 하세요. **68년생** 친구에게 말조심하도록 하세요. **80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92년생**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닭 — **57년생** 모든 일이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69년생** 목적 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밀고 나가세요. **81년생**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 합니다. **93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개 — **58년생** 원하는 곳으로 떠나세요. **70년생**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됩니다. **82년생**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94년생**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척이 있습니다.

돼지 — **59년생** 새로운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됩니다. **71년생** 조급해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3년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95년생**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나가면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아이언맨



송병형의 딴생각

마블사가 만든 캐릭터인 아이언맨은 영화에서 피스메이커로 등장한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막아내고 심지어는 외계의 침입까지 막아낸다. 영화 속 세계 최대 무기업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오너이자 천재 과학자인 주인공은 '무기상=죽음의 상인'이라는 공식을 깬다. 그가 벌이는 정의로운 싸움의 한 축이 바로 동업자들인 '죽음의 상인'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현실세계로 나온 아이언맨은 전형적인 '죽음의 상인'이다.

스타크 인더스트리는 현실세계 속 록히드마틴의 아바타나 마찬가지다. 록히드마틴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무기업체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로고는 록히드마틴의 로고와 닮아 있다. 록히드마틴은 헐크(HULC)라고 불리는 아이언맨 슈트도 개발했다. 심지어 록히드마틴은 영화 속 토니 스타크처럼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도 추진 중이다. 기존의 핵융합로보다 소형화되고 실용성 높은 상용 핵융합로 개발을 공언했다. 이처럼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록히드마틴의 실체는 아이언맨과는 딴판이다. 요즘 록히드마틴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은 중국의 굴기로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대중국 포위망을 짜고 있다. 그 와중에 미중 간 화약고로 떠오른 게 두가지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 동중국해에서 미국이 구축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위망이다. 남중국해 인공섬은 이미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졌지만, 사드 위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미중 간 갈등은 불붙기 시작할 게 뻔하다. 또 한국은 그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이미 중국은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이 위험천만한 사드 문제를 두고 록히드마틴이 사고를 쳤다. 그것도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이다. 록히드마틴은 지난 29일(미국시간) 각국 특파원들과 미국 내 일부 언론인들이 상주하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사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를 담당하는 마이크 트로츠키 부사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한미 양국이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트로츠키 부사장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미 양국 정부가 즉각 이를 부인하자 황당하게도 다음날 록히드마틴은 홍보담당자를 통해 "잘못된 발언"이라며 전날 트로츠키 부사장의 발언을 번복했다.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문제가 무기업체에는 하루만에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다.

과거에도 록히드마틴은 비슷한 전과가 있었다. 지난 4월 미사일개발 총책인 댄 가르시아 수석 책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미국과 한국 정부에 사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고 한·미 양국은 이를 부인했다.

록히드마틴의 속내는 뻔하다. 사드 문제를 이슈화해 한반도 배치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미국의 차세대 전략폭격기(LRSB)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노스럽 그루먼에 밀렸다. 주력사업의 한 축인 항공기 사업이 부진하자 다른 한 축인 미사일 사업에서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 와중에 동북아의 평화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인 이 무기업체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도입하는 F-35의 제조사다. 록히드마틴은 F-35를 한국에 팔면서 약속한 차세대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도 결국 지키지 않았다. /글로벌뉴스부장

社說

위안부 문제 해결책 끌어내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만났다. 한·중·일 정상들은 1일 회담을 갖고 동북아평화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번 회담을 위해 1일 서울에 도착했다. 2일에는 그동안 성사여부를 둘러싸고 추측과 논란이 무성했던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아베로서는 '1차 아베 내각' 때인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이후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아베의 한국 방문 이력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말을 재차 실감하게 된다. 그 사이 한국이나 일본의 정상은 서로 먼 곳을 에둘러 다니기만 했지 지척에 있는 상대방 국가는 방문하지 않았다. 아니 방문할 수가 없었다. 두 정상은 이번에도 불과 30분 정도만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으로 냉랭한 관계다. 서로 마지못해 만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굳이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만나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는지는 새삼 설명이 필요없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국의 현안들은 갈수록 쌓이기만 했다. 한국은 특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결단을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여전히 마다하고 있다.

바로 이웃한 나라끼리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면 피로감도 커지고 경제나 문화 등 다른 분야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갈등요인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아 양국 관계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아베 총리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촉구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번 양자 정상회담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해롭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 점 명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협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변곡점 맞은 반도체 시장



기자 수첩
정 은 미
<산업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제조업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일등 공신은 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990년 처음으로 수출 비중 1위에 오른 후 1998년 170억 달러, 2009년 310억 달러 등으로 매년 수출액을 늘려왔다.

반도체가 이제는 수출 경제를 이끄는 간판 품목이 됐다. 지난해에도 수출 비중이 10.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올해도 9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약 470억 달러로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 중이다.

그러한 반도체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미국의 샌디스크를 우회 인수해 메모리시장에 진출했고 미국 인텔도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재진출을 밝히며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영광은 잊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술 격차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펴왔고 지난해에는 1200억 위안(약 2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굴기(崛起)'를 선언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칭화유니그룹은 마이크론을 인수하겠다며 230억 달러를 제안했다가 미국 의회의 제동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낸드플래시 쪽으로 눈을 돌렸고, 이번에 샌디스크를 인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정부 정책에서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다. 대학에서 반도체분야 석·박사 배출도 점차 줄어 인재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질 인적자원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기업과 함께 정부가 환경 조성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프라이팬 오래 쓰려면

소비자 119

생선, 육류를 비롯한 각종 구이, 볶음, 튀김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프라이팬은 자주 사용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사용법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례가 많다.

프라이팬을 자주 세척하면 코팅면이 손상된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 후 남아 있는 기름만 닦아내고 재사용하는 것보다 물세척을 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스펀지에 주방세재를 묻혀 닦아낸 후 충분히 건조하는 것이 위생은 물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뜨겁게 가열된 프라이팬을 찬물에 바로 넣어 식히면 오히려 프라이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고온에서 오랫동안 예열해도 프라이팬의 코팅면이 손상될 수 있다.

요리하고 남은 음식을 프라이팬에 둔 채 다음 식사 때 데워먹는 경우도 많다. 이 역시 잘못된 프라이팬 관리법이다.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기나 염분이 굳어 프라이팬을 빠르게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리 후 남은 음식은 프라이팬에 보관하기 보다 접시나 다른 그릇에 옮겨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프라이팬은 언제 교체하는 것이 좋을까. 코팅이 벗겨져 식재료가 눌러붙는다면 바로 교체해야한다. 코팅이 벗겨진 것을 방치하면 코팅부분이 음식에 달라붙어 코팅조각까지 섭취할 수 있다.

선호하는 요리나 조리 스타일에 따라 프라이팬의 종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프라이팬은 재질에 따라 알루미늄, 주물,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나뉜다. 알루미늄은 소재의 특성상 열전도율이 좋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요리에 적합하며 주물의 경우 열 보존력이 좋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해야 하는 저수분 요리나 찜 요리 등에 최적화돼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다른 소재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 짧은 시간 내에 고열로 바삭하게 익히는 요리에 사용하면 좋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부 고

▲조명호씨 별세, 조원생(농업)·원용(효성 홍보실장)·원성(동부화재 상무)·원칠(사업)씨 부친상, 정덕호·심지연(경남대 명예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씨 장인상 = 1일 오전 5시 30분, 강남성모병원 14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02-2258-5940)
▲김응분씨 별세, 김혜숙(동해시의회 의장)씨 모친상·맹윤재(동해 금강약국 대표)씨 장모상 = 10월 31일 오후 5시 50분, 동해전문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010-8421-9982)
▲위예순씨 별세, 백태준(한국수출입은행 이란 주재원)씨 모친상 = 10월31일,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3일 (062-527-1000)
▲김형진(전 광주상고 교감)씨 별세, 김현홍(KB국민은행 목포지점 부지점장)·민평(사업)씨 부친상, 오화숙(조대여중 교사)씨 시부상, 이갑재(감사원 기동감찰과 수석감사관)씨 장인상 =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발인 3일 오전 8시. (062-231-8902)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DOOSAN BEARS SEOUL
DOOSAN
기다려주신 14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01년의 우승을 기억하는
꼬마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13살 꼬마팬의 꿈은
14년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팬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에도
14년이나 아쉬움을 안겨 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우승은
팬 여러분의 우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산베어스 2015 한국시리즈 우승
TEAM DOOSAN
2015 KOREAN SERIES
CHAMPIONS
두산중공업